

2015 New Year Vol.55

경북의사회



경상북도의사회
Gyeongsangbukdo Medical Association

제6회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공모



본회는 의학에 대한 연구 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학술상 수상자와 지역사회와 지역민을 위한 헌신적인 봉사활동으로 사회의 귀감이 되는 자에 대한 봉사상 수상자를 다음과 같이 공모하오니 회원 여러분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시상개요

- 상 명 :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각 1명)
- 시상내용 : 본상 상패 및 부상(각 금 1냥)
- 후 원 : (주)동원약품
- 시상일정 : 2015년 3월 21일, 본회 정기대의원총회 석상

응모자격

(1) 학술상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 201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학술지에 게재된 논문(동일한 논문으로 타 학술상을 수상한 논문과 최근 3년간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수상자는 제외)
- 1저자 혹은 교신저자

(2) 봉사상 (회원 및 단체)

- 본회 회원으로서 회원의 제반의무를 필한 자 또는 의사단체
- 국내 또는 국외에서 진료, 교육, 문화, 육영, 체육, 예술, 지역사회 개발, 사회복지사업 등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펴 본인 또는 지역 주민 또는 관련기관, 단체 등 사회적 귀감이 되는 자
- 본인 신청 또는 시군의회에서 추천하는 자

제출사항

- 제출마감 : 2015년 2월 25일(수)까지
- 제출처 :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대현동)
경상북도의사회
- 제출방법 : 우편 또는 직접제출
(제출서류 마감은 2월 25일 18:00 이전 도착분에 한함)

제출서류

(1) 학술상

- 신청서 및 이력서 각 1부
- 논문목록표 1부(논문은 우선 순위로 기재)
- 논문개요, 학술적인 의의 및 의학발전의 공헌도 요약 1부
- 논문의 별책 각 1권

(2) 봉사상 (회원 및 단체)

- 신청(추천)서 및 이력서 각 1부
- 봉사개요 및 활동내역 1부
(각종사진 및 신문기사 등 활동사항)

기타사항

- (1) 경상북도의사회 학술상 및 봉사상 규정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은 일반 관례에 준하며, 심사는 경상북도의사회에서 위촉한 심사위원회에서 함.
- (2)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수상자에게는 본회에서 개별 안내합니다.
- (3) 제출서류(신청서 등) 양식은 **본회 홈페이지(www.igbma.or.kr)**의 공지사항에서 내려 받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 (4) 기타 자세한 문의로는 **본회(☎ 053-941-7785)**로 문의 바랍니다.
- (5) 응모자를 대상으로 심사한 결과 본회 학술상 및 봉사상의 취지에 맞지 않을 경우 수상자를 결정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2015. 1.

경상북도의사회

경북의사회

2015 New year Vol.55

Contents



- 04 신년사**
역동하는 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되기를 · 정능수
역지사지(易地思之) · 김광만
반드시 아름다운 봄은 올 것입니다 · 추무진
2015년은 의협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희망찬 새 해 · 변영우
- 08 포토뉴스**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 · 경북권역 학술대회
연말 복지시설 방문, 희망나눔 실천
- 11 회무소식**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 · 경북권역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13 회무단신**
- 16 회원동정 · 의료기관 개원현황**
- 18 공지사항**
정부 발표, '규제기요탄'의 문제점
불법 사무장 병원 척결을 위한 대의원 안내
- 23 분회 및 병원소식**
- 27 회원문예**
수 필 _ 내가 보였던 장 박사님 · 전경홍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시즌 · 박송훈
봉사후기 _ 제2회 네팔 해외의료봉사와 KD밴드 · 이종규
여행후기 _ 산티아고 가는 길 II · 이인태
지역임원 _ 꽃 예찬론, 복수초 · 조재현
- 45 의학 및 건강칼럼**
노화와 공팔 · 윤영득
- 49 센터소개**
동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 소개 · 임현술
- 51 2014년도 의사회비 납부 요청 및 신용카드 결제 안내**

발행인 정능수 편집인 김종영 발행일 2015년 1월 16일 발행처 경상북도의사회 TEL. (053)941-7785 FAX. (053)941-5557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로 82
홈페이지 www.igbma.or.kr 제작처 선진애드 대구광역시 서구 당산로 88길 24 TEL. (053)555-3336 FAX. (053)556-3273

○ 주요연중 행사일정	
2014. 4. 7	제42회 보건의 날 기념식
2014. 4. 27	의협 제66차 정기대의원총회
2014. 5. 12	제52호 경북의사회보 봄호 발간
2014. 5. 17~18	제36회 경상북도 의사의 날 행사 (춘계종합학술대회, 친선의 밤, 경북의학제)
2014. 5	2014년도 회원정기신고
2014. 6. 27~29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2014. 7. 22~27	해외의료봉사(감보디아 프놈펜)
2014. 9. 20~21	전북 · 경북의사회 친선행사
2014. 9. 28	사회공헌 및 의료봉사 기금마련 골프대회
2014. 9. 30	제53호 경북의사회보 여름호 발간
2014. 10. 5	경상북도 보건단체 골프대회
2014. 10. 19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2014. 10. 19	제37회 전국지사테니스대회
2014. 11. 24	제54호 경북의사회보 가을호 발간
2014. 11. 30	대구 · 경북 권역별 종합학술대회
2014. 12	연말 복지시설 방문
2015. 1. 16	제55호 경북의사회보 신년호 발간
2015. 2. 28	2014년도 전체이사회 및 시군회장회의
2015. 3. 5	2014년도 회무감사
2015. 3. 21	분회 제64차 정기대의원총회
2015. 3. 31	회무인수인계

역동하는 에너지와 함께 새로운 역사를 쓰는 한 해가 되기를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청양'의 해가 밝았습니다. 복 많이 받으시길 바랍니다. 양은 공동체를 잘 융합해 무리생활을 하고 사회성이 뛰어난 것은 물론 자신을 희생하는 희생정신이 강하며 남을 배려하고 낮추는 동물입니다. 이런 양들의 모습을 보면 마치 우리 의사들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고사성어에 '중심성성 중구삭금(衆心成城 衆口鑠金)'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의 마음이 일치단결하면 성벽과 같이 견고하며, 또 여러사람 입에서 나오는 말은 무쇠마저도 녹일 수 있을 만큼 무서운 힘을 지니고 있다'는 뜻으로 많은 회원들이 한마음으로 뭉쳐 지역 및 지역에 상관없이 의사라는 공동체의식을 갖고 의료환경을 개선하려고 노력한다면, 우리의 권리를 어느 누구도 침범할 수 없고 어떠한 어려운 일도 거뜬히 해낼 수 있다고 확신합니다.

지난 한해는 정말 다사다난의 한해였습니다. 국가적으로는 세월호 침몰사고 등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온 국민이 참으로 애통해하고 있습니다. 지금 '의료의 침몰'이라는 대재앙이 오고 있는데 세월호 침몰 때 처럼 끝없는 타임은 놓치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의사들의 이익이 아닌 국민들 입장을 고려하는 제도와 법을 제안해야 하고, 의사들 직업은 타조직 보다 '믿음'이 중요하므로 내부정화(윤리위원회 기능 강화)를 통해 국민의 신뢰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되겠습니다.

의료계에도 그 어느 때보다도 어려운 시기였습니다. 원격의료 등 잘못된 정부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2000년 의약분업 이후 14년 만에 '집단휴진'이라

는 의사 총파업을 하였습니다. 그 과정에서 회원들 간 갈등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사회 구성원들을 분열시키고 의사들의 공동체를 파괴시킬 수 있으나, 의사회 발전과 성장을 위한 필수과정이라고 봅니다. 갈등 없는 무관심 보다는 긴장 있는 갈등관계가 변화의 동력이자 새로운 발전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2014년 4월 27일 개최된 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의료계 대통합 혁신특별위원회'를 구성하였습니다. 혁신위 목표는 전지역 및 지역 회원들간의 단합이며, 의사회 구조를 변혁하는 것이었습니다. 의사회 운영이 의료계지도자 중심에서 회원 중심으로 변해야 한다는 목소리를 담았습니다.

최근 의료계에는 거센 폭풍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2014년 12월 28일 정부는 규제 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의료계에서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보건의료분야 규제기요틴 과제를 발표하였습니다. 현재 대한의사협회는 '규제기요틴 정책 저지를 위한 범의료계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강력히 대응하려고 합니다.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 회원 여러분!

2015년 한해는 새로운 도약과 발전의 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역동하는 에너지와 함께 우리 의사회 회원들께서 모두 합심한다면 우리는 새로운 역사를 쓰게 될 것입니다. 회원여러분에게 성공의 환희만이 가득한 한해가 되었으면 합니다. 다시 한 번 새해를 맞아 회원님 모두 복 많이 받으시고, 항상 건강해주시길 기원드립니다.

경상북도 의사회 회장 정 능 수





역지사지(易地思之)



지난 구랍에 타인과 약간의 분쟁이 있었습니다. 주 이유는 원상복구의 범위에 대한 해석이었습니다. 세입자는 생활하자라고 주장했고 저는 일반적인 생활자자를 넘어서는 상황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시간적, 공간적 제약 때문에 세입자 뜻대로 결론 지어졌습니다만 한때는 법까지도 생각했었습니다.

한달이 더 지난 지금 생각해보니 역지사지(易地思之)란 말이 떠오릅니다. 제가 너무 많은 것을 바라지는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세입자 입장에서 보면 상대방이 너무 과하다 생각이 들 듯도 합니다.

이제 3년간의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제15대 의장단의 임기가 끝나갑니다. 얼떨결에 의장에 당선되어 이제 좀 알만하니까 후임 의장에게 바톤을 넘겨야 할 때가 되었습니다. 3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면 한 달도 빠른 날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임기가 두세달 남은 현재도 해결된 일보다 남겨져있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것 같습니다.

의사사회에도, 같은 의사라는 이유로 영원히 함께 할 수밖에 없지만 도저히 서로 함께 갈 수 없을 것 같은, 다양한 생각을 가진 회원들이 많이 있습니다.

정부의 원격진료에 대한 의협의 비대위에 대한 인식 문제도 그렇고, 의협의 근본적인 체질 변화를 바라는 일반 회원들의 바람을 다루는 대통령혁신위원회도 이런저런 여러 가지 이유로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것을 내가 해결해야만 한다고 생

각하면 무리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한걸음을 떼어놓으면 내 다음 사람이 다음 걸음을 떼고, 그렇게 역사가 이루어져야만 한다고 생각합니다. 혁신이 되어야지 혁명이 되면 안 됩니다.

상대편도 우리와 같은 교육을 받은 의사인데 왜 그렇게 생각할까 한번쯤은 역지사지(易地思之)의 마음으로 돌아봐야겠습니다.

최근에 초등학교 밴드에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아주 평범한 글이지만 지금 이때 읽으니 가슴에 깊이 와 닿습니다.

**조금 늦는다고 속상해 하지마
살아가면서 중요한 건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니까**

마지막으로 3년간 어려운 시기에 도의사회를 맡아 고생하신 제42대 집행부와 사무처 직원분들의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두분 부의장들의 적극적인 협조에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누구보다도 생각나는 분들은 묵묵히 각자의 자리에서 도민들의 건강을 위해 최선을 다하고 계신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원분들입니다. 며칠 전 신문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의사의 직업윤리 의식을 가장 높게 평가하고 있다는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는 의사고 아직 할 일이 많이 있습니다.

모두들 파이팅 하시고 사랑합니다~

경상북도의회 대의원회 의장 김 광 만

반드시 아름다운 봄은 올 것입니다



존경하는 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를 맞아 인사드립니다. 온화하면서 화목의 상징인 양의 해를 맞이하여 회원님 개인과 가정에 행복과 평화가 가득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항상 회원들을 어떻게 섬길지, 국민에게 어떻게 다가갈지 고민하고 행동하시는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정능수 회장님과 김광만 의장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아울러 국민건강과 환자를 위해 수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의사회원님들 모두에게 존경과 감사 인사 드립니다.

지난 한 해 의료계 내·외적으로 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 회원님들께서 보여주신 결연한 의지와 따뜻한 신뢰로 인해 희망을 바라볼 수 있었습니다. 대립과 갈등 속에서도 회원님들의 응원과 지지를 바탕으로 시대가 요구하는 변혁과 희망의 끈을 움켜질 수 있었습니다.

새해에도 진정한 소통을 통해 회원님들께서 희망을 보며, 특히 젊은 동료의사들이 미래를 꿈꿀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해나갈 것입니다. 소통과 화합으로 모아진 의료계 역량을 '전문가로서 의사의 바른 권위'와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하는데 집중하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와 의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은 내용의 상업적 이용 방지, 그리고 시대변화와 달라진 국민 눈높이에 맞춰 의사윤리를 강화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빠른 의료의 발전과 평균수명의 연장으로 의사 재교육은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이에 지난해 출범한 연수교육 평가단을 통해 연수교육의 질을 제고하고 실질적으로 회원님들께 도움이 되는 연수교육이 되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회원님들의 많은 민원 중 하나인 현지조사와 현지확인제도를 개선하고자 합니다. 지난해에 해왔던 에볼라바이러스

병, 미세먼지, 노인학대 등과 같이 국민건강보호에 직결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관심과 의학적으로 바른 정보를 제공하고자 노력하겠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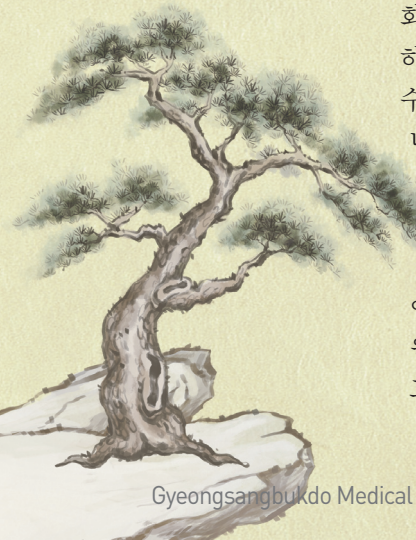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지난 30여년 가까이 지속하고 있는 전북의사회의 동서 교류를 통해 언제나 말보다는 행동으로 실천하고, 의료계의 화합·발전을 위해 노력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사회의 낮은 곳을 돌보고 섬길 줄 아는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에 존경을 표합니다. 캄보디아 의료봉사, 필리핀 태풍피해 성금 모금 뿐 아니라, 사랑의 무료급식과 장학금 사업, 교정시설 지원사업 등 지역사회를 위한 경북의사회의 헌신에 깊은 감명을 받습니다. 경북의사회에서 실천하고 계시는 노블리스 오블리제의 정신을 의료계 전체에 확산하기 위해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새해에는 제39대 의협회장 선거가 있습니다. 중요한 시기인 만큼 공명정대하게 선거를 치름으로써 전국 11만 의사회원님들의 민의가 의협 회무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회원님들께서도 선거에 적극 참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해 시련과 어려움의 시간을 참고 견디신 회원 여러분, 우리 자신이 누구인지 전문가로서의 자신감을 잃지만 않는다면, 우리가 스스로를 믿고, 서로서로 화합하여 하나가 된다면, 반드시 아름다운 봄은 올 것이라고 믿습니다.

회원님들을 응원하고 존경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희망찬 2015년 새해 아침에
대한의사협회 회장 **추무진**



2015년은 의협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희망찬 새 해



존경하는 경상북도 의사회원 여러분,
2015년 을미년 새해가 밝았습니다. 희망찬 새해를 맞아 회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가정과 진료실에 풍요로움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지난 한해를 되돌아 볼 때 의협은 대내외적으로 엄청난 변화를 요구하는 일들이 봇물처럼 일어난 것은 의협의 변화를 갈구하는 젊은 회원들의 항변이며 요구였습니다. 앞으로 의협은 회원들의 뜻과 시대의 요구에 따라 모든 면에서 크게 바뀌어 져야 합니다.

지금 대통령혁신특별위원회가 새로운 의협 100년 시대를 담을 혁신과 정관개정을 위해 활발히 활동하고 있습니다. 대의원 선거를 예외 없이 직선제로 실시한다면 건강한 의협의 자양분이 되고 회원들은 의협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어 의협의 크고 작은 어려운 일들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2015년은 의협 제39대 회장선거가 있는 해입니다. 이제 침묵하는 대다수 회원들의 지지를 이끌어 내고 대내외적으로 의료계 종주단체로서 위상을 회복시켜 줄 능력 있는 회장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후보들의 능력과 역량을 잘 검증해서 회원들로부터 존경과 신뢰를 받고 어려운 의협을 잘 이끌어 갈 능력 있는 의협 회장을 꼭 선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회장 선거에 적극적인 동참을 호소합니다.

회원여러분, 그동안 과거 33대부터 38대 회장까지 치러진 직접선거에서 투표에 참가한 회원 투표

율은 20%이상을 넘은 적이 한 번도 없었으며 아마저도 우리가 염원하던 그 직선제 취지가 무색할 정도로 투표율이 점점 줄어드는 추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회원들의 무관심과 외면이 초래한 회장선거는 의사결정 왜곡, 대표성 부족, 지지율 빈약과 이로 인한 선거결과와 불복, 자질검증 부족 등 수많은 폐해가 고스란히 대한의사협회를 작고 초라하게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부메랑이 되어 회원님들의 권익에도 심각한 그림자를 드리우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결책은 의외로 단순하고 명쾌합니다. 회장님이 11만 회원에서 나오는 동력을 얻을 수 있도록 제주도 최남단에서 개원하시는 회원님부터 휴전선 전방에서 군의관으로 복무하시는 회원님까지, 올해 의과대학을 갓 졸업하신 인턴선생님부터 개원해 계시는 고령의 대선배님까지 회원님이면 누구나 회장 선거, 대의원 선거, 회비납부에 빠짐없이 참여한다면 모두 해결될 수 있습니다. 올 회장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절대 포기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경북의사회 회원여러분,

이제 27대 대의원회 의장의 임기도 몇 달 남지 않았습니다. 그 동안 소신을 가지고 열심히 했습니다만 되돌아보니 많은 모자람과 부끄러움 뿐입니다. 부족한 역량이지만 회원님들을 위해 남은 기간 끝까지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2015년은 의협이 새롭게 재탄생하는 희망찬 새해가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대한의사협회 대의원회 의장 변영우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학술대회



01 대구·경북 회원 7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16명의 연자가 나와 최신 의학을 주제로 열띤 강의를 했다.



02 오랜만에 만나 즐겁게 담소를 나누며 기념 촬영을 하는 대구·경북 회원들

03 의협 비대위에서 회원대상 원격의료 시범사업 반대 서명운동 펼쳐

04 행사를 마친 후 대구·경북의 임원들이 한자리에 모인 가운데 단체 기념촬영

05 경품추첨에서 대상을 차지한 김영훈(경산, 성모연합의원)회원에게 본회 정능수 회장이 상품 전달



연말 복지시설 방문, 희망나눔 실천

연말연시를 맞아 본회와 시군의회에서 어려운 이웃들을 위하여 복지시설을 직접 방문하여 희망 나눔을 실천하고 위문공연과 더불어 각종 생필품을 전달하였다.



포항시의사회

- 2014. 12. 23(화) 포항모자원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경주시의회

- 01 2014. 12. 9(화), 대자원 방문
- 02 2014. 12. 16(화), 예티센터 방문



01



02



안동시의사회

- 2014. 12. 19(금) 안나의집과 프렌치스코집 방문



경산시의사회

- 01 2014. 11 19(수) 햇살가득한집 방문
- 02 2014. 11 20(목) 사론의집 방문



01



02

상주시의사회

- 01 2014. 12. 9(화),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 방문





제34차 의협 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본회와 대구시의사회는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본회와 대구시의사회는 지난 11월 30일(일) 호텔 인터불고 대구(만촌동)에서 700여 명의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대한의사협회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권역학술대회’를 성황리에 개최했다.

이번 학술대회는 대한의사협회 제34회 종합학술대회에 전회원이 하나되는 모습을 보이기 위한 행사의 일환으로 서울을 비롯한 전국에서 권역별 행사를 개최하게 되어 본회와 대구시의사회가 공동으로 행사를 준비했다.

오전 8시 30분부터 등록을 시작한 이날 학술대회는 경북의사회 나득영·최영환 학술이사와 대구시의사회 이형 학술이사와 민복기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본회 정능수 회장과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회장의 개회사에 이어 추무진 대한의사협회장의 격려사가 있었다.

본회 정능수 회장과 대구시의사회 김종서 회장은 인사에서 “급변하는 우리사회는 과학의 발달과 함께 의학 또한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는 만큼 이러한 의료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노력이 필요하다.”며, “예로부터 대구와 경북은 행정구역만 다를 뿐 뿌리는 같은 하나의 공동체라며, 이번 권역별 학술대



회를 통해 선진의학 기술의 습득뿐만 아니라 반가운 얼굴을 만나고 안부를 물으면서 대구·경북 회원이 모여
럼 함께 하는 교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사협회 추무진 회장은 격려사에서 “의협 발전을 위한 대통합혁신위원회 운영과 집행부의 책임있
는 의결구도를 위해 최대한 노력하고 있다.”는 말과 “각종 강제규제와 진료 방해, 복지부와 공단 실사, 의료분
쟁 조정 등에 대해 앞으로도 계속 노력할 것”을 약속했다.

모두 4개의 세션에 A·B룸으로 나눠 열린 세미나는 대구파티마병원 이봉렬 내과 과장의 ‘스타틴을 이용한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를 시작으로 오후 3시 30분까지 모두 18명의 연자가 나와 급변하는 의료환경 속에서
꼭 필요한 최신 의학지견 등을 발표했다.

‘만성병 핵심치료’를 주제로 개최한 세션 I의 A룸에서는 ‘만성병 핵심치료’를 주제로 경북의사회 나득영 학
술이사의 사회로 진행, △스타틴을 이용한 고콜레스테롤혈증 치료(대구파티마병원 내과 이봉렬 과장) △고혈
압 환자의 목표 혈압은?(경북대의전원 순환기내과 채성철 교수) △당뇨 치료의 최신지견(계명대 내분비내과
조호찬 교수) 등 3개의 연제, B룸에서는 ‘알레르기질환 최신치료’를 주제로 경북의사회 최영환 학술이사의 사
회로 △알레르기 피부 가려움증 치료(동국의대 피부과 서무규 교수) △천식과 복합증후군(영남의대 호흡기내
과 진형정 교수) △소아천식 치료(대구가톨릭의대 소아청소년과 정혜리 교수) 등 3개의 연제가 발표 되었다.

이어 세션Ⅱ도 A·B룸으로 나눠 진행한 가운데, A룸은 ‘외래에서 흔히 보는 질환의 최신지견’을 주제로 △
건망증과 치매의 차이점(계명대 신경과 이현아 교수)와 △하지불안증후군의 최신지견(대구가톨릭의대 신경
과 김지연 교수) △노안 교정(한빛안과의원 박진욱 원장) 등 3개의 연제가 발표 됐으며, B룸은 ‘상처치유와 흉
터관리’를 주제로 대구시의사회 민복기 공보이사의 사회로 진행되어 △상처치료의 최신지견(경북대의전원 성
형외과 정호윤 교수)과 △초기상처 치유와 흉터예방법(계명대 성형외과 손대구 교수) △임상에서 당뇨병관
리하기(경북대의전원 피부과 이석중 교수) 등 강의가 있었다.

세션Ⅲ은 개최식 및 런칭특강으로 △원격진료 저지대책(의협비상대책위원회 조인성 위원장)에 이어 △재테
크의 숨겨진 비밀(신한금융그룹PB기업센터 이재근 지점장) 등의 특강이 있었다.

이어 세션Ⅳ에서는 ‘최근 관심이 집중되는 질환과 대책’을 주제로 △에볼라바이러스와 의료인 감염(경북대의
전원 감염내과 장현하 교수) △통풍의 진단과 치료(대구가톨릭의대 류마티스내과 최정운 교수) △폐경기 여성
의 행복을 위한 호르몬 치료(동국의대 산부인과 양희생 교수) △의사들의 건강 이대로 좋은가?(이화대의대 건진
의학과 전해진 교수) 등 최신지견이 발표되어 회원들에게 유용한 정보의 장이 되었다.

끝으로 시행한 경품 추첨에서 대상에 김영훈(경산, 성모연합내과의원) 회원이 당첨 되었다.

고문단 간담회서 의료현안 논의



지난 11월 18일 (화) 오후 7시, 포항에서 본회 고문단 간담회를 개최하고 본회 주요회무와 더불어 최근 의

료현안을 보고하고 고문단의 고견을 청취하는 자리를 마련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신은식 고문 등 6명의 고문단과 김광만 의장 및 의장단, 집행부 임원, 김석곤 비대위원장 등이 참석하여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 결과 보고, 전북·경북의사회 친선행사, 회원친선 골프대회, 회원 및 가족 등반대회, 회원복지증진사업, 본회 모바일 홈페이지 제작 등에 대한 본회 주요회무보고가 있었다. 또한 본회 비대위 김석곤 위원장은 원격의료의 현재 진행상황과 원격의료의 문제점과 향후 의료계의 투쟁방향에 대해 상세히 보고하였다.

이어 현재 의협 대통합혁신위원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대의원 직선제와 회원투표제 도입 등 민의를 반영하기 위한 개혁 작업에 구조적 개선을 통해 민주적인 의사결정구조가 마련되고, 의료계 지도자들이 구심점이 되어 회원들을 통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며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과 본회 정능수 회장이 혁신위에서 활발한 활동을 통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모두가 하나되는 의협을 만드는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있으니 고문단에서도 관심있게 지켜봐 줄 것을 요청하였다.

정능수 회장은 인사말에서 “바쁘신 일정중에도 참석해주신 고문님과 임원진께 감사드리며, 원격의료는 의협과 본회 비대위에서 열정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여 자금의 줄속 원격의료 시범사업은 반드시 철회되어 국민의 건강이 최우선으로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고문님을 비롯한 임원진들도 관심을 갖고 비대위에 힘을 실어달라.”고 하였다.

또한 “오는 11월 30일 대구경북권역 학술대회에 고문님께서도 꼭 참석하셔서 후배들을 격려해주시고 자리를 빛내 주셨으면 좋겠다.”고 하였다. 김광만 의장 또한 “모든 고문님께서 자리를 함께 해주신데 대해 감사드리며, 고문님께서도 항상 의료계에 관심을 갖고 현안을 해결할 수 있도록 많은 고견

을 부탁드립니다.”고 하였다.

이날 고문단 회의는 김우석 정보이사의 사회로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광만 의장, 신은식 고문의 인사말씀과 주요회무 및 의료현안보고, 김석곤 본회 비대위원장의 경과보고, 고문단 의견청취 순서로 진행되었다.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 회의 개최



지난 11월 14일(금) 오후 4시, 본회 사무처에서 사무직원 회의를 개최하고 2014년도 의사사회비 납부 독려와 더불어

대구·경북권역 학술대회 개최에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날 회의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문상웅 총무이사, 이재흠 재무이사를 비롯한 본회 및 시군의사회 사무직원과 공제조합 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정능수 회장은 “원활한 회무가 진행될 수 있도록 진력하고 있는 사무직원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원격의료 참여거부 전국 의사 서명운동 전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한다.”고 하였다.

이어 고문단에서 추진한 주요회무보고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였으며, 토의사항으로는 2014년도 의사사회비 납부가 지난해에 비해 다소 저조함에 따라 시군의사회 사무직원들의 적극적인 노력을 당부하였으며, 지역의사회와 연계한 불우시설 위문 지원을 위해 시군의사회에서 계획중인 방문일정을 보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의협 제34차 종합학술대회 대구·경북 권역학술대회가 11월 30일(일) 개최됨에 따라 많은 회원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홍보와 행사당일 모두 참석하여 원활한 행사가 진행되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의협 공제조합에서는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을 안내하는 등 사무직원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구하였다.

또한 원활한 회무진행을 위해 본회 홈페이지에 수록된 회무공지사항을 숙지하고 홈페이지를 활용한 다양한 소식을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회원의 인적사항이나 근무현황이 변경될 시 반드시 연락하여 최신의 정보가 업데이트 되도록 협조를 구했다.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시 보건소장 반드시 의사임용 건의



경상북도 지역보건의료계획 (2015~2018년까지)의 중장기 수립 검토와 특수시책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을 위한 제2차 협의체 회의가 지난 12월 4일(목) 오전 10시, 경북도청 제2회의실에서 개최했다.

이날 회의는 보건의료관련단체와 보건관련 교수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지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계획에 따른 추가내용에 대해 심의하여 확정하였다.

본회 정능수 회장은 이날 협의체 위원으로 참석하여 지역보건의료계획 운영계획을 심의하는 한편, 보건소장 임용과 관련하여 보건소의 업무 대부분이 의사와 관계된 것이고 의학적인 지식과 의료적인 측면을 반영할 때 반드시 의사를 우선 임용토록 하는 지역보건법에 따라 경북도내 보건소장이 의사가 임용될 수 있는 방안과 최근 의사들의 건강과 관련하여 진료실에서의 스트레스와 각종 감염원 노출 등 최전방에 있기 때문에 의사들의 건강이 곧 경북도민들의 건강이라는 점을 내세워 도내 권역별로 휴일을 이용한 의사 건강검진사업을 진행하자는 의견을 제시하는 등 지역보건의료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협조를 요청하였다.

할매·할배의 날 홍보 포스터 제작 홍보



경상북도가孝문화 확산과 올바른 인성정립을 위해 전국 최초로 매월 마지막 토요일을 '할매·할배의 날'을 정하고 손자손녀가 조부모님을 찾아가 삶의 지혜를 배우고 소통하는 날로, 인성이 넘치는 행복한 사회구현을 제정목표로 삼고 있다.

이에 본회에서는 '할매·할배의 날'이 지역에 정착하고 전국으로 확산돼 다시 한 번 경북이 대한민국 격대문화의 발상지로 자리 매김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홍보하고자 '할매·할배의 날' 홍보 포스터 2,000매를 제작하여 시군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 유관기관에 배부하여 지역민들이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 줄 것을 요청하였다.

심평원대구지원 이경자 지원장, 신임 인사차 본회 내방 인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지난 1월 1일자 인사에서 심평원대구지원장에 신임 이경자 지원장을 인사발령하였다.

이에 신임 이경자 지원장과 이형심 심사평가부장은 지난 1월 7일(수), 본회를 방문하여 정능수 회장에게 인사를 건내고 의료계와 상생할 수 있도록 업무를 요청하였다.

한편 본회 정능수 회장은 지난 2회에 걸친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에 대해 상세히 설명하고 향후에도 심평원대구지원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하였다. 또한 건강보험 심사업무에도 회원간 소통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자고 하였다.

-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기다립니다. -



본회 회무 및 지역의사회와 병원급 의료기관의 주요소식을 발 빠르게 접할 수 있는 '경북의사회보'를 계간으로 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회원 여러분의 투고를 요청하오니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 소 재 : 제한없음(시, 수필, 의학 및 건강칼럼 등)
- 원고매수 : A4용지 2장 내외(글자크기 12포인트 기준)
- 보내실 곳 : 홈페이지(www.igbma.or.kr)의 회원마당
→ 회보투고란에 게재(상시제출가능)
- 기타사항 : • 채택된 원고에 대해서는 소정의 기념품을 드립니다.
• 의사회보 편집방침에 따라 취지에 맞도록 약간의 원고 수정이 있을 수 있습니다.

캄보디아 수스야라 국회의원과 해외의료봉사 관련 간담회



본회는 의료수준이 비교적 낙후된 해외국가인 캄보디아에 대한 희망나눔 의료봉사활동을 지난 2013년부터 진행

하여 선진의료기술 전달과 더불어 함께 살아가는 지구촌을 위해 대한민국 국격을 드높이는 계기를 마련하였으며, 해외 의료봉사의 know how를 축적하고 보건의료단체의 위상을 강화하고 있다.

금년도에는 경상북도에서도 해외의료봉사를 지원하기 위해 예산을 편성하는 등 적극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음에 따라 본회에서도 원활한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캄보디아 수스야라 국회의원과 지난 1월 9일(금) 대구에서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간담회는 본회에서 정능수 회장과 김재왕 부회장, 장유석 의료봉사단장, 박재영 사무처장이, 캄보디아 측에서는 수스야라 국회의원, 김명철 소장, 삼빳 수스야라 국회의원 보좌관과 경주세계문화엑스포 이영석 사무처장이 참석하여 두 번에 걸쳐 진행된 해외의료봉사의 경과 설명과 향후 캄보디아 해외의료봉사를 위해 상호 협조하는데 온힘을 기울이기로 하였다.

대한의사협회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서비스 친구추가 방법



대한의사협회는 회원들의 민원을 보다 신속·원활하게 처리하고 회원들과의 의사소통을 강화해 최근 발표된 정부의 규제기요틴 정책 등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새해부터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서비스를 개설했습니다.

옐로아이디 서비스는 회원이 언제 어디서나 궁금한 사항이나 각종 민원, 정책 제언 등을 할 수 있고 회원이 필요로 하는 주요회무 내용을 신속하게 제공해 드리는 서비스입니다.

특히, 대한의사협회는 정부의 규제기요틴을 저지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예정이며, <카카오톡 옐로아이디>를 통해 관련 사항을 신속하게 회원들께 홍보하고 회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적극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옐로아이디 서비스는 대한의사협회와 1대1 대화를 통한 민원·정책 건의와 함께 개인별 메시지 전송과 미니홈을 이용한 다양한 회무 관련 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습니다.



옐로아이디 서비스 가입은 카카오톡에서 '아이디 찾기'의 검색창에 '대한의사협회'를 입력하신 후 '친구추가'를 하거나 QR코드를 이용해 가입하실 수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는 KMA콜센터와 함께 유비쿼터스 기능을 갖춘 <카카오톡 옐로아이디> 서비스를 통해 회원들의 민원을 신속히 해결하고, 다양한 정책·제도 개선의견을 회무에 반영

함으로써 회원들과 함께 하는 대한의사협회를 만들어 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제공

상호공제 및 의료배상공제 가입안내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이 함께 합니다

"대한의사협회 의료배상공제조합"은 의료사고분쟁에 대한 처리 및 피해보상을 통해 조합원의 권익 보호를 목적으로 발족되었습니다.

가입안내

- 의료전문서비스 제공으로 인해 일어나는 수진자(환자)의 신체장해나 사망에 대하여 피공제자(가입조합원)가 부담하는 법률상 손해배상책임 담보 "보험성"
- 타보험 가입조합원(전환가입)혜택
 - 공제료할인 : 무사고시
 - 소급담보일 인정 : 보험최초가입일
- 보상한도 : 3천만원, 1억원, 2억원, 3억원
- 자기부담금(면책금) : 있음

상호공제

- 공제조합에 가입할 조합원이 의료사고로 어려움에 처한 조합원을 도와주는 "상호부조"성격
- 매년 3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 가입 조합원 모집

↓ 보상의 재원마련

- ▶ 보상한도 : 최대 1천만원
- ▶ 자기부담금(면책금) : 없음

가입문의

공제조합본부

- 서울/경기/인천/강원/제주 관할
- [150-85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길로 59 샘탑빌딩 5층
- ☎ 02-1899-0059 / Fax 02-6234-1346, 02-792-1361

지부사무소

- 대구[대구/경북]
- [702-824] 대구광역시 북구 대현동 82 대구광역시사회회 내
- ☎ 053-941-7102, 070-4707-5123 / Fax 053-956-3273

KMA 대한의사협회의료배상공제조합

본회 정능수 회장, 법무부 장관 표창



본회 정능수 회장은 법무부장관(황교안)으로부터 비행소년 선도보호와 보호관찰 및 갱생보호사업 지원 등 범죄예방활동에 진력하여 밝고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한 공으로 지난 12월 31일(목) 표창패를 수상하였다.

정능수 회장은 법무부 대구보호관찰소 보호선도 위원(1995.6.1~1996), 법무부 범죄예방 자원봉사위원(1996~2014.2.28), 법무부 법사랑위원(2014.3.1~현재), 법무부 범죄예방위원 의성지역협의회 의성지구 회장(2013.3.1~2014.2.28), 법무부 법사랑위원 의성지역연합회 의성지구 회장(2014.3.1~현재)으로 활동하면서 건강한 사회 건설에 기여 한 바 있다.

이종규 회원, 제7회 대한민국 환경 & 사회봉사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상 수상



이종규 회원(울진, 연세 가정의학과의원 원장)이 내외매일신문이 주최하고 월드그린환경 연합중앙회가 주관한 제7회 대한민국 환경 & 사회봉사대상 국회보건복지위원장 상을 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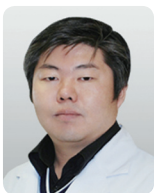
상하였다. 이종규 회원은 지역주민들의 건강증진은 물론 몽골과 네팔 등 해외의료봉사 전개하여 힘든 사회에 희망의 등불이 되고 있다.

우극현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교수,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 선출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우극현 교수가 대한직업환경의학회 회장에 선출됐다. 신임 우극현 회장의 임기는 2014년 12월 1일부터 2년이다. 대한직업환경의학회는 1988년 설립돼, 한국의 직업의학 및 환경의학 전문가가 참여해 다양한 학술 교류를 통한 학문 발전을 추구하는 학술단체다. 예방의학을 전공한 우극현 교수의 전문진료분야는 직업환경보건관리로 25년간 국가산업단지인 구미에서 근로자 건강관리 모델 개발과 직업관련 또는 환경성 질환에 대해 진료, 연구해 오며 직업환경의학 분야 전문가로 평가받고 있다.

서영진 동국대학교경주병원 교수, 세계 인명 사전 2곳 동시 등재



동국대학교 경주병원 비뇨기과 서영진 교수가 세계 3대 인명사전 중 국제인명사전센터(IBC)와 마르퀴즈 후즈 후 2015년판에 함께 등재된다. 서 교수는 그동안 비뇨기분야의 탁월한 연구 업적을 전 세계적으로 인정받아 영국의 세계적 인명정보기관인 국제인명사전센터(IBC)로부터 '21세기 뛰어난 지성 2,000인 2015년 판(2000 Outstanding Intellectuals of The 21st Century 2015)'과 동시에 마르퀴즈 후즈 후에 등재된다.

「2014년도 시군의사회 정기총회서 신임회장 선출」

본회 산하 시군의사회는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신임회장을 선출하고 새 집행부를 구성하였다.

안동시의사회 신임 최경수 회장



지난 2014년 12월 30일(화),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최경수 회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최경수 신임회장은 1959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안동시 남문동 소재 최비노기과의원 개원하고 있으며, 안동시의사회 윤리위원장을 역임하였다.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영주시의사회 신임 우대영 회장



지난 2014년 12월 19일(금),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우대영 회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우대영 회장은 1963년생으로 경북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영주시 휴천동 소재 대영연합의원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임기는 오는 2015년 1월부터 1년간이다.

상주시의사회 신임 김용환 회장



지난 2014년 12월 18일(목),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용환 회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김용환 회장은 1964년생으로 고려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상주시 상산로 소재 용한이비인후과의원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으며,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경산시의사회 신임 장재혁 회장



지난 2014년 12월 9일(화), 2014년 정기총회에서 신임회장에 장재혁 회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장재혁 회장은 1964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하였으며, 경산시 하양읍 소재 제일정형외과의원을 개원하고 있으며, 경산시의사회 부회장을 역임하였고 현재 경북 의사회 기획이사를 맡고 있다. 임기는 2015년 1월부터 2년간이다.

군위군의사회 신임 최진수 회장



군위군의사회 신임회장에 최진수 회원이 선출되었다. 신임 최진수 회장은 1971년생으로 영남의대를 졸업하였으며, 군위군 군위읍 소재 현대내과의원을 개설하고 있으며, 군위군의사회 총무이사를 맡아 활동해 왔다.

청도군의사회 신임 박용준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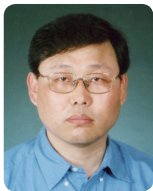
지난 2014년 12월 11일(목),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박용준 회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박용준 회장은 1964년생으로 중앙의대를 졸업하였으며, 청도군 청도읍 청화로 소재 마디연합정형외과 의원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회원별세]



류만준 회원 (1956년생, 경북의대 졸)
경산, 백천내과의원 원장
별세일 : 2014년 11월 26일(금)

봉화군의사회 신임 김동근 회장



지난 12월 16일(화), 2014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동근 회원을 선출하였다. 신임 김동근 회장은 1961년생으로 계명의대를 졸업하였으며, 봉화군 춘양면 소로리 소재 춘양사랑의원을 개설하여 지역민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다.



임중선 회원 (1944년생, 경북의대 졸)
포항, 임정형외과의원 원장
별세일 : 2014년 12월 14일(일)

개원을 축하합니다 (2014년 11월 ~ 2014년 12월)

포항시

강희철 _ 유강연합의원

(790-885) 포항시 남구 연일읍 유강길 17번길 9
T. (054)281-7005 / F. 281-4368

김현정 _ 라임소아청소년과의원

(790-911) 포항시 남구 오천읍 남원로 86-28
T. (054)246-7575 / F. 246-0500

박종경 _ 좋은의사들속시원내과의원

(790-310) 포항시 남구 시청로 7
좋은의사들빌딩3층
T. (054)271-9030 / 271-9039

서혜경 _ 서해경소아청소년과의원

(791-270) 포항시 북구 장량중앙로 52
T. (054)256-7272 / F. 256-7273

이태영 _ 참좋은통증의학과의원

(791-110) 포항시 북구 포스코대로 288
미르빌딩3층
T. (054)284-9955 / F. 284-9956

정진무 _ 아산가정의학과의원

(791-805) 포항시 북구 양학로 47-1
T. (054)278-0550 / F. 278-0560

경주시

고명구 _ 고내과의원

(780-809) 경주시 안강읍 안강중앙로 205
T. (054)762-8641 / F. 762-6834

추승균 _ 한일의원

(780-807) 경주시 안강읍 비화원로 61
T. (054)763-0700 / F. 763-0702

경주 으뜸요양병원

(780-972) 경주시 충현로2길 10
T. (054)774-5400 / F. 775-8844

구미시

고진혁 _ 인동정형외과의원

(730-320) 구미시 인동북길 105
T. (054)476-7040 / F. 476-7042

이길상 _ 해피맘소아청소년과의원

(730-927) 구미시 신시로 74
T. (054)458-0119 / F. 458-2777

서울아동병원

(730-320) 구미시 여현로 30 4층
T. (054)476-3650 / F. 476-3656

웰키즈아동병원

(730-933) 구미시 인동중앙로 15
e트리분상가5-7층
T. (054)482-9700 / F. 482-9701

큰사랑요양병원

(730-924) 구미시 산업로 168-8
T. (054)713-1000 / F. 713-1099

튼튼소아청소년병원

(730-927) 구미시 신시로 67
T. (054)458-8275 / F. 457-8875

영천시

김민한 _ 상래한이비인후과의원

(770-903) 영천시 야사동 호국로 95 2층
T. (054)331-1119 / F. 331-1116

문경시

박대훈 _ 삼성마디연합신경외과의원

(745-887) 문경시 중앙로 106 2층
T. (054)701-0119 / F. 701-0120

경산시

늘푸른요양병원

(712-804) 경산시 경안로 158
T. (053)813-0660 / F. 814-0440

양지요양병원

(712-800) 경산시 경산로 174
T. (053)815-9100 / F. 813-1212

고령군

장웅식 _ 수가정의학과의원

(717-804) 고령군 고령읍 연조길 6
T. (054)954-7838 / F. 954-7848

국민건강 도외시한 정부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규제기요틴)에 대해 강력 규탄한다

– 정부 발표, ‘규제기요틴’의 문제점 –

- 정부는 지난 2014년 12월 28일(일) 규제기요틴 「민관합동 회의」를 개최하여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총 153건의 규제기요틴 과제를 확정·발표하였으며, 이중 카이로프랙틱 자격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를 마련하는 한편,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추진 등이 포함되어 의료계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함
- 이에 회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의 문제점을 널리 홍보하여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아야 할 것임
- 특히, 가장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국민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무시한 채 무면허 의료행위를 조장하고, 일자리 창출이라는 경제적 관점에만 주안점을 두고 있어 의료체계에 대혼란과 갈등만을 초래할 것으로 의협은 가능한 모든 수단을 강구하여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핵폭탄)을 저지해 나갈 필요성이 절실한 실정임

‘규제기요틴’에 대한 의료계 강력대응 필요성

1. 의료체계의 근간을 흔드는 핵폭탄으로 작용

- 정부가 '14. 12. 28(일) 규제개선과 일자리 창출이라는 미명하에 발표한 규제기요틴 보건의료분야는 비의사의 의료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의사의 고유 영역인 의료행위(현대의료기기를 통한 진단 및 치료 등)를 한의사들에게 허용하는 것으로 의사 생존권 문제로 의료계를 초토화시키려는 것임.

카이로프랙틱사 및 문신사 합법화, 의료기기와 구분되는 이·미용기기 허용, 한의사의 현대 의료기기 사용 및 보험적용 확대 등으로 의료계 대혼란과 갈등을 초래

2. 한의사의 무면허의료행위 조장 → 의약분업보다 더 큰 의사의 진료권 침해 사안

- 정부가 앞장서 무면허의료행위를 조장함으로써 국민건강에 심대한 위해를 끼치는 것으로 지난 2000년 의약분업 사태보다도 수십배 이상의 의료주권이 침해될 사안이며, 의료계가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중으로 국민 의료비를 갈취하는 재화 낭비를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며, 의사 직업윤리와 국민건강, 바람직한 보건의료체계를 지키고자 함.

3. 전국 의사 반모임 개최를 통한 규제기요틴 저지

- 전국 의사 반모임 개최를 통해 회원들에게 정부가 발표한 규제기요틴 문제에 대한 정책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위기의식을 갖고 한마음 한뜻으로 우리의 권리를 찾고자 함.



주요사안별 핵심쟁점 및 문제점

1.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 정부 안

[대안마련]

• (의료기기 사용) 양 · 한방 이원화 체계의 특성과 국민의 요구, 헌법재판소 결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지침마련 추진

- * 헌법재판소 2012헌마551(‘13. 12월 결정) ①보건위생상 위해를 가할 우려가 없고 ②기기사용에 전문적 식견이 필요치 않고 ③한의학대의 의료기기 교육이 있는 경우 사용 가능
- 기기별 유권해석을 통해 한의사가 사용할 수 있는 진단·검사기기를 명확화(’15. 상반기)

■ 의협 검토의견

- 한의사가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여 진단 및 처방을 내리는 것은 의료법상 허용된 면허범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행위를 정부 스스로 허용하겠다는 것이며, 환자들의 빈번한 방사선 노출과 이종진료로 인한 의료비 이중 낭비 등 피해는 고스란히 환자에게 전가될 것임.
- 특히, 헌법재판소 판결에 따른 안압측정기, 자동안굴절검사기, 자동시야측정장비 등의 안과적 의료기기와 청력검사기 등 건강검진을 위한 혈액검사기기 등의 한의사 사용을 허용하는 것은 비전문가들이 현대의학을 불법 도용하는 것임.
- 이는 정상안압 녹내장과 같이 안압은 정상이나 녹내장이 발생할 수 있고, 청력이 정상이라고 해서 질병까지 없다는 것은 아닌 바, 해당 의료기기의 검사결과로만 질병을 진단해 환자에게 치명적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음.
- 즉, 학문적 근거도 없을 뿐 아니라, 비전문가인 한의사의 현대의료기기 사용 확대에 따른 치료시기 및 진단 지연 등으로 국민건강 위해 및 국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으로 한의사가 의학적 원리에 근거한 현대의료기기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의료일원화가 이뤄져야 할 것임.

2. 한방 건강보험 적용 확대

■ 정부 안

[대안마련]

• (보험적용) 양 · 한방 이원화 체계 하에서 양방 의료행위에 대한 한의업 보험적용 여부는 신중검토

■ 의협 검토의견

- 면허의 범위를 벗어나 한의사에게 의사의 의료행위를 할 수 있도록 추진하는 것으로 강력히 저지해야 하며, 건정심에서 논의되고 있는 한방 물리요법 급여 확대의 경우도 의료적 중증도나 긴급성, 치료효과성, 비용효과성, 환자의 비용부담 정도 등을 보장성 강화 우선순위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나 대부분의 한방 술기(의료기기 포함)들은 기준에 따른 체계적인 검증을 거치지 않은 채 정치적인 이유로, 국민 감정에 호소하여 비정상적으로 급여화가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즉, 의과와 한방의 직역 갈등이 아닌 국민 건강 향상과 의료비 부담 경감을 위한 방향으로 한방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화는 더욱 신중하게 추진되어야 할 것임.

3. 비의료인의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제공 허용

■ 정부 안

[부분수용]

• (카이로프랙틱 서비스 허용) 중장기검토

- 현행 보건의료체계 내에서 카이로프랙틱사 직역 신설 수용은 곤란. 다만, 보건의료 직역의 전문화·세분화 차원에서 연구용역 등을 통해 대안 모색

■ 의협 검토의견

- 의료인이 아닌 일반인에게 의료행위에 속하는 카이로프랙틱 기술을 허용하는 별도의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신설하는 것으로 국민의 건강권을 심각하게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며, 특히 민간자격으로도 신설이 제한되고 있는 카이로프랙틱 자격을 신설하는 것은 의료체계를 무너뜨리는 처사임.

+ 공지사항

- 의협에서는 관련과(신경외과, 정형외과)를 중심으로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관련 연수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의사들이 도수치료(카이로프랙틱) 기술을 직접 활발히 행할 수 있도록 동 연수강좌를 적극 수강토록 추진할 예정이며 이를 근거로 정부의 카이로프랙틱 자격 별도 신설 움직임에 적극 대처할 예정임.

4. 비의료인에 의한 예술문신 허용

■ 정부 안

[부분수용]

• (예술문신 제공 허용) 수용

- 예술문신 허용을 위한 문신사법 제정(국회 계류 중)

■ 의협 검토의견

- 문신행위는 명백한 의료행위로 비의료인에 의한 문신행위의 부작용을 호소하는 사례가 빈번한 상황에서 문신행위를 의료행위와 분리하여 누구나 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문신행위의 침습성과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위험성으로 국민건강 차원에서 큰 위해임.
- 특히, 문신행위는 피부에 상처를 내는 침습적 행위로 시술 후 피부에 켈로이드(Keloid)가 발생할 수 있고, 상처부위의 염증 및 전염성 질환의 감염, 비후성 반흔 형성, 이물질 함유 육아종(foreign body granuloma) 등이 생길 수 있으며, 비위생적인 문신기구를 사용할 경우 B형 또는 C형 간염, 매독, 에이즈 등 세균 및 바이러스에 감염될 위험이 있는 명백한 '의료행위'임.
- 문신행위는 영구적으로 이물질을 인체 내에 주입하는 행위로서 일반적인 의료행위보다 국민건강에 중차대한 위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뿐만 아니라 완전히 제거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국가가 권장해서는 안될 것임.

5. 미용관광산업 활성화를 위한 미용기기분류 신설로 미용목적 의료기기 사용 허용

■ 정부 안

[수용]

• 미용기기를 새롭게 정의하고 미용목적으로 사용하는 기기 중 안전성이 입증된 기기를 의료기기가 아닌 미용기기로 분류하여 미용업을 하는 자가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공중위생관리법 개정안 국회 계류 중)

■ 의협 검토의견

- 미용사에게 의료기기 사용을 허락함에 따라 상당수 의료기기가 미용기기로 전환될 것이며, 이는 의료기기와 동등한 수준의 부작용 발생가능성이 있으며, 유사 의료행위의 성행으로 인해 국민건강에 심각한 피해를 끼칠 것이며, 의료전문영역에 대한 비의료인의 의료행위로 인한 의사 직업가치 붕괴 및 생존권 문제까지 위협받을 수 있으며, 추후 한의사 등 비전문가의 의료기기 사용 확대의 도화선이 될 것임.
- 의협에서는 보건복지부의 수용 입장 철회를 요구하며, 국회 계류 중인 남인순 의원 대표발의 공중위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폐기될 수 있도록 모든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저지 노력이 필요할 것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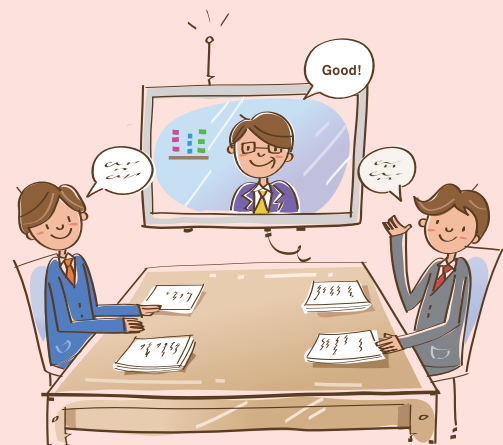
향후 추진계획

■ 실무 대응 TF 구성, 운영

- 정부 '규제기요틴' 발표 보건의료 주요 과제에 대한 정책 대응방안 마련
- 주요 과제별 정부 추진방향 모니터링 및 자료수집
- 의협 정책제안 및 정책 홍보대책 수립
- 대의원 홍보 강화 및 의료계 역량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및 추진

■ 시도 의사회장단 회의 및 각 지역 연석회의를 통한 의료계 대응방안 마련

- 구체적인 대응 로드맵 마련 <추후 대의원 공지 예정>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회원 안내

현행 의료법상 의료기관은 의료인 및 비의료법인, 국가만이 개설할 수 있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이러한 규제를 피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불법으로 개설하는 사무장병원은 허위청구, 환자유인, 과잉진료, 기타 불법행위 등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동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과 불법 사무장병원으로 인해 회원들이 피해를 당하는 일을 방지하고자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회원 안내'를 마련하였습니다. 아울러 향후 불법 사무장병원 척결을 위한 대책추진 및 관련 제도개선의 내실을 기하기 위해서는 불법 사무장병원의 실태·현황 파악이 필요한 실정인 바,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제보자료 및 회원 현황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수집을 요청드립니다.

사무장병원의 개념

1. 개념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가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인 또는 비의료법인 명의로 개설·운영하는 의료기관

* 의료법 제33조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아니면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 (단서 생략)

1.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2.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3. 의료업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하 "의료법인"이라 한다)
4. 「민법」이나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비의료법인
5.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준정부기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지방의료원,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법」에 따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2. 문제점

- 영리목적의 의료기관 운영으로 불법·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로 건강보험 재정 누수
- 내부고발 없이는 실질적으로 적발이 어려움

3. 사무장병원 적발시 처벌사항

- [민사상 효과] 제33조 제2항 '강행법규', 위반시 계약 '무효'(대법원)
- [형벌 및 행정처분]
 - [비의료인] 5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 벌금(제87조 제1항)
- 의료인이 사무장병원 개설행위에 공모시 공동정범으로 처벌 (형법 제30조)
 - [의료인] 300만원 이하 벌금(제90조), 자격정지 3월 (제66조 제1항 제2호)
- 단 해당 의료인이 자진신고한 경우 처분 감경·면제(법 제66조 제5항)
- 건강보험(의료급여)상 요양급여비용 환수조치 별도(건강보험법

제57조 제1항), 비의료인에게 부당이득 연대환수(동조 제2항), 수사 결과가 확인된 경우 해당 요양기관이 청구한 요양급여비용 지급 보류(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의2)

4. 불법 사무장병원의 발생 원인

- [의료인] 사무장병원의 불법성에 대한 인식 및 정보부족
- [관계기관] 보건소, 국민건강보험공단, 보건의료인단체, 사법기관 등 관계기관의 유기적인 협조체계 부족
- [의료기관개설] 비의료법인·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 제한 규정 미흡
 -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는 자에게 사단법인·의료생협 명의를 대여하여 의료기관을 개설 (불법 의료생협 등 의료기관 개설가능 법인명의 장사)

5. 불법 사무장병원의 특성

- 인력특성 : 적은 의사, 70세 이상 고령의 봉직의
- 병상특성 : 3~5배나 많은 병상 운영
- 기관명 등 변경 : 개인 의원 기관명(의료기관 명칭), 계좌번호 잦은 변경
- 진료형태 : 입원비를 높이며(사단법인 의원 3배, 개인 의원 20배) 일부 부당지표가 높은 것이 특징

※ 사무장 병원으로 의심되는 사례

- 비의료인(사무장)이 의료기관 직원 근로계약 등을 주도
- 영리추구 목적으로 불법행위 자행 (환자 진료비 감면, 교통편의 제공 등)
- 비의료인의 의료행위 관여 등에 대한 민원반발
- 개설의사 변경에도 불구하고 직원(사무장) 계속 근무
- 의료광고가 과다한 의료기관
- 설립과정의 정당성이 불분명한 의료생협 등이 개설한 의료기관

사무장병원 유형 및 의심사례

【유형 1】 사무장이 의사 고용

비의료인이 건물과 각종 의료장비 제공 및 운영을 책임지고, 의사가 비의료인으로부터 매월 일정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신의 명의로 의료기관 개설

〈적발사례〉

“한 의사 명의를 빌려 한의원을 개설, 진료행위를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안모(41)씨 등 한 의사 31명과 사무장 14명 등 총 45명 입건. 한 의사들은 2009년부터 최근까지 수도권 일대 병원 20여 곳에 명의를 빌려주고 병원 인가를 받게 해준 뒤 월 400만~500만 원을 받으며 고용의사로 일했으며, 실제 병원 운영 수익은 사무장이 챙긴 것으로 드러났다.”

【유형 2】 편법으로 의료생협을 설립하여 의료기관 개설

비의료인이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비영리법인 대표자는 명의대여 수수료를 정기적으로 지급 받음

〈적발사례〉

“의사가 아닌 사람이 돈을 주고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방식으로 운영되던 사무장병원이 무더기로 적발. 비영리법인의 명의를 건당 2,000~3,000만원에 대여하고 매월 사용자 명목으로 200만 원을 지불하는 방식으로 설립된 11개 사무장병원을 적발”

【유형 3】 비영리법인이 사무장에게 법인명의 대여

비의료인이 의료기관 설립목적으로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의료생협 설립인가를 받고 이사장으로 등재한 후 의료기관을 개설하여 운영

〈적발사례〉

“유령 소비자생활협동조합을 만들어 의사를 고용, 거액의 요양 급여를 챙긴 이른바 '사무장 병원'이 무더기로 적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상 의료생협을 만들기 위해서는 조합원 30명 이상의 출자를 받아야 하지만 '사무장 병원'은 일반인을 유령 조합원으로 서류를 꾸민 뒤 자신이 모두 출자, 의료생협을 만들어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한 것임

사무장병원 대처방안

1. 사무장병원 의심 인지 즉시 관계기관 신고 및 퇴사

- 자신이 해당 의료기관 개설을 위한 명의도용에 이용되었다고 의심될 경우 인지 즉시 관계기관에 신고하고 사후처리 진행
- 봉직의의 경우 자신이 근무하고 있는 의료기관이 사무장병원으로 의심될 경우 빠른 시일 내에 퇴사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관계기관에 신고 진행

※ 신고방법

- 시군구 보건서(의약담당) 또는 경찰서
-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 : 1577-1000

2. 대한의사협회 불법의료신고센터 이용

- 현재 의협에서는 사무장병원 등 불법의료신고센터를 운영 중에 있으며, 의협 홈페이지(www.kma.org) 내에 신고 게시판을 이용한 신고 및 콜전화(1566-2844)을 통한 신고가 가능함

3. 불법 사무장병원 관련 제보자료 및 회원 현황 피해사례에 대한 자료수집

- 본회 홈페이지 온라인공문의 사무장병원 신고서식 활용 신고

+ 분회 및 병원소식

포항시의사회

회원과 함께하는 문화행사 가져



포항시의사회(회장 이우석)는 회원과 함께하는 문화산책의 일환으로 지난 11월 24일(월) 오후 8시부터 회원 및 가족과 직원에게 무료 영화 관람의 기회를 제공하였다. 이날 문화행사는 최신영화인 '인터스텔라'를 감상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제5회 독도사랑 음악회 '사랑하기 콘서트' 개최



포항지역 4개 보건단체(포항시의사회·치과의사회·한의사회·약사회)와 독도의용수비대 기념사업회 공동주관으로 지난 11월 23일(일) 오후 7시, 포항문화예술회관 대공연장에서 제5회 보건단체와 함께하는 독도사랑 음악회 '사랑하기 콘서트'를 개최하였다.

이날 콘서트는 정능수 경북의사회장과 이병석 국회의원, 이강덕 포항시장, 이철구 포항시의회 의장, 경북 4개 보건단체장과 많은 시민들이 참석하여 오프닝 전체합창을 시작으로 우리 귀에 익숙한 멜로디로

공연을 이어갔다. 다함께 부르는 끝맺음 곡으로 '독도는 우리땅'을 부르며 화려한 막을 내렸다.

포항모자원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개최



지난 12월 23일(화) 오후 7시, 포항모자원 다목적실에서 '제6회 포항모자원 식구들과 함께하는 송년의 밤' 행사를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저녁만찬을 시작으로 모자원 식구들과 함께하는 작은음악회로 꾸며져 참석자 모두 따뜻한 연말을 보냈다. 작은음악회는 심사평가원대구지원 김우정·박재홍 직원이 통기타 공연을 시작으로 분위기를 고조시켰으며, 포항모자원 가족의 노래와 연주,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의 합창으로 2014년의 한해를 마무리하는 아쉬움을 달래며 송년의 밤 행사를 마무리하였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서는 포항모자원에서 커가는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달하기 위해 본회와 포항시의사회,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대구지원(지원장 강미경), 영일만동지회(회장 신명준)에서 후원금을 전달하였으며, 포항시의사회 중창단(단장 한형원)에서 멋진 공연을 펼쳤다.

2015년 신년인사회 개최

2015년 올미년 새해를 맞이하여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유대를 돈독히 하고 의료계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기 위한 신년인사회가 지난 1월 7일(수) 오후 6시 30분, 모카컨



벤션에서 개최되었다.

이날 신년인사회는 포항시의사회 이우석 회장과 본회 정능수 회장, 이강덕 포항시장, 의협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본회 대의원회 김광만 의장, 신은식·이원기 고문 등 많은 내빈과 회원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다.

이우석 회장의 내빈소개와 신년사를 시작으로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내빈들의 축사가 있었으며, 새해 덕담과 건배사, 새로 전입한 회원의 소개가 있었다. 또한 포항시의사회 중창단의 새해의 여망을 담은 합창공연이 있는 후 회원 상호간 친교의 시간을 가졌다.

경주시의사회

전체 반모임 및 제8차 확대이사회



경주시의사회(회장 도홍)는 지난 11월 11일(화) 오후 7시,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상화를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의 원격의료 저지 전국규모 반모임 요청에 따라 2014년 전체 반모임 및 제8차 확대이사회를 개최하고 원격의료 저지 투쟁방안 등에 대해 논의하였다.

복지시설인 대자원과 예티센터 방문

매년 연말 소외받는 이웃들에게 사랑을 나누고자 복지시설을 방문하여 따뜻한 정을 나누었다. 경주시 천북면에 소재한 아동복지시설인 대자원에는 12월 9일(화) 방문하여 생필품을 전달(100만원 상당)하였으며, 경주시 강동면에 소재한 중증장애인 보호시설인 예티센터는 12월 16일(화) 방문하여 성금 100만원을 전달하였다.

회원 및 가족 송년의 밤 행사 개최



지난 12월 23일(화) 오후 7시, 힐튼호텔 체리룸에서 본회 정능수 회장을 비롯한 의협 대의원회 변영우 의장, 경주시보건소 김미경 소장, 경주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경주시의사회 회원 및 가족 송년의 밤 행사를 성황리에 개최하였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는 작은 음악회와 빙고게임, 행운권 추첨 등을 통해 회원 상호간의 정을 나누고 화합을 도모하는 자리로 꾸며졌다.

안동시의사회

안동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안동시의사회(회장 김석곤)는 지난 12월 30일(화) 오후 6시30분, 안동성소병원에서 2014년도 안동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최경수 회원을 선출했다. 이날 정기총회는 안동시의사회 김석곤 회장과 본회 정능수 회장, 신현수 경북공동

모금회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회선언에 이어 회장인사, 내빈축사,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의안토의,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에서 회무보고와 2014년도 일반회계 세입 및 세출은 이익없이 받아들여 통과시키는 한편, 임원선출에서 회장으로 최경수 회원이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으며, 부회장에는 장완섭·정재엽 회원이, 총무이사는 권준영 회원, 감사에는 김석곤 전임회장이 선출되어 임기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 활동하게 된다.

제8회 안동시 의료단체 골프대회



안동시 의사회와 한의사회, 치과의사회는 친목 도모를 위해 매년 순번제로 주최하는 골프대회가 지난 10월 26일(일) 오후 1시 30분, 안동 탑블리스C.C에서 치과의사회 주최로 각단체에서 2팀씩, 총 6팀이 참가하여 안동시 의료단체 골프대회를 개최하였다. 이날 골프대회 단체전은 치과의사회가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개인전은 김두표 회원(안동병원)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안나의 집·프랜치스코의 집 방문

연말연시를 맞아 어려운 이웃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정을 나누기 위해 지난 12월 19(금), 안나의 집과 프랜치스코의 집을 방문하여 생필품과 쌀 등 200만원 상당을 전달하였다.

구미시의사회

2014년 송년의 밤 행사 개최

구미시의사회(회장 전우성)는 지난 2014년 12월 30일(화) 오후 7시 30분, 제주성가든에서 한해를 보내는 아쉬움과 다가오는 새해의 희망을 기원하는 송년의 밤 행사



를 개최했다.

이날 송년의 밤 행사에는 전우성 회장을 비롯한 회원 70여명이 참석하여 다사다난했던 한해를 회상하며, 한해동안 의사회 회무에 참여해 준 회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였으며, 밝아오는 올미년 새해에는 더 발전하는 계기가 되기를 기원하였다.

상주시의사회

'생활물품 40박스' 사회복지관 전달

상주시의사회(회장 김원기)는 지난 12월 4일(목), 상주보건소 소회의실에서 의사회 김원기 회장과 신범식 총무이사과 보건소 조식연 소장이 참석한 가운데 홀로사는 노인을 위해 생활용품 등 물품 40박스를 상주시종합사회복지관에 전달하고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도록 도움의 손길을 보냈다.

경산시의사회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 개최



경산시의사회(회장 김종영)는 지난 12월 9일(화) 오후 7시, 경산컨벤션웨딩에서 2014년도 경산시의사회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장재혁 회원을 선출하였다. 이날 정기총회는 경산시의사회 김종영 회장과 본회 정능수 회장, 경산시 최영조 시장, 건보공단경산·청도지사 김기열 지사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데 개최선언에 이어 회장인사, 내빈축사, 유공회원 표창, 회무 및 결산보고, 감사보고, 의안토의, 임원선출 순으로 진행되었다. 정기총회에서 회무보고와 2014년도 일반회계는 이익없이 받아들였으며, 임원선출에서 회장으로 장재혁 회원이 단독 출마하여 신임회장으로 선출되었다. 감사에는 유중선·김병훈 회원이 선출되었으며, 임기는 오는 2015년 1월 1일부터 2년간이다. 한편 경산시사회는 이웃사랑 나눔의 성금 2백만 원을 어려운 이웃들에게 쓰여질 수 있도록 경산시에 전달하였다.

햇살가득한 집 · 사론의집 방문



지난 11월 19일(수), 정신질환으로 어려움에 처한 여성들에게 치료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하고 있는 경산시 자인면 소재 햇살가득한 집을 방문하여 이웃사랑 나눔의 실천으로 생활용품 전달하고 격려하였으며, 11월 20일(목)에는 경산시 중방동 소재, 사론의 집을 방문하여 신생아 용품 기저귀 및 분유 전달하였다.

의성군의사회

2014년도 정기총회 개최



의성군의사회(회장 한길성)는 지난 12월 19일(금) 오후 7시 30분, 마늘이야기에서 2014년도 정기총회를 겸한 송년회 행사를 개최했다. 이날 총회에는 본회 정능수 회장과 김재왕 부회장, 의성군의사회 한길성

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되었으며, 한해동안 의사회 발전을 위해 노력해주신 회원들에게 감사의 전하고 연말연시를 뜻깊게 보내기를 당부하였다.

에스포항병원

연말송년회, 봉사활동과 문화공연으로 돌려



에스포항병원(병원장 김문철)은 지난 12월 19일(금) 지난해에 이어 올해 역시 직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영화관에서 '2014년 에스포항병원 전직원 문화 송년회'를 열고 한 해 동안의 발자취를 담은 병원 영상을 감상한 뒤 친절직원 포항 시상식을 가졌다. 이 후 직원 다수가 선택한 최신영화를 감상, 조용하게 한 해를 마무리 지었다. 같은날 이들은 인근 지역아동센터를 방문해 기타 3대를 증정하는 등 기부활동에도 적극 동참했다.

출산장려 우수사례 기업 대표로 발표

지난 12월 9일(화) 영일대 호텔에서 '일·가정균형 출산장려 간담회'에 참석해 발표했다. 포항시 주관으로 열린 이 간담회에서 포항 CBS방송, 포스코, 현대제철, (주)세영기업 등 여러 기업이 참석해 일·가정균형 출산장려 우수사례를 발표하고, 출산장려사업 안내 및 기업 실천방안에 대해 토의했다. 이날 에스포항병원 김태동 총무과장은 현재 병원에서 시행하고 추진 중인 '출산장려 정책과 직원 복지정책' 등에 대한 사례를 발표했다. 에스포항병원은 그동안 출산장려와 직원 복지를 시행한 공로로 "제 3회인구의 날 대통령 표창"과 "출산장려 유공부문 포항시장 표창"을 수상한 바 있다.

전문병원 홍보물공모전 은상 수상



지난 12월 5일(금) 전문병원 홍보물 공모전에서 ucc부문 은상을 차지했다. 보건복지부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주최한 이번 공모전은 전문병원의 우수성을 효과적으로 알리기 위해 열린 것으로 참가팀 중 전문병원으로서 유일하게 에스포항병원이 수상의 영광을 안았다.

이번 공모전 수상작은 에스포항병원 팀(이동빈 외 5명)이 영화 예고편과 c 패러디 형식으로 제작해 대중에게 보다 쉽고 재미있게 의미를 전달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미안마 산업안전보건관계 공무원 방문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의 초청으로 미안마 노동고용사회보장 근로감독국장 Win Shein 외 9명이 지난 12월 12일(금) 에스포항병원을 방문했다.

미안마 노동고용사회보장부 공무원들은 에스포항병원의 각 병동과 수술실 등을 돌아보며 병원의 화학물질 관리와 취급방법,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및 관리 감독자의 역할, 병원 전 직원의 건강관리 방법 등을 견학하고, 병원 안전보건에 대한 질문을 하는 등 열성적인 모습을 보였다.

안동병원

한국, 일본 항공응급의료전문가 모여 추계학술대회 개최

안동병원(병원장 김효운)은 국내 항공응



급의료 전문가들이 한자리 모여 응급환자의 헬기구조, 이송, 치료에 관한 현황과 과제 그리고 발전방향을 주제로 열띤 토론을 벌였다. 제4회 한국항공응급의료협회 추계학술대회가 지난 11월 28일(금) 안동병원 컨벤션홀에서 헬기 응급의료서비스 확대를 주제로 항공응급의료학회, 국민안전처 중앙소방본부, 대한응급의료학회, 중앙응급의료센터, 대한항공 등 관련분야 전문가 100여명이 참가해 다양한 주제발표와 토론형식으로 진행됐다.

복지부 국가지원 권역외상센터에 선정

안동병원은 권역외상센터 설치기관으로 최종 선정됐다. 권역외상센터는 교통사고와 추락 등으로 인한 다발성 손상, 출혈 등을 동반한 중증외상환자에 대해 365일 24시간 병원 도착 즉시 응급수술이 가능하고 최적의 치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전용 시설과 장비, 전문인력을 갖춘 외상전용 전문치료기관이다. 안동병원 권역외상센터는 국비와 자부담을 포함, 170여억원을 투자해 경북권역에서 발생하는 중증외상환자를 24시간 365일 전담하게 된다.

경북닥터헬기, 5백번째 임무 성공



중증 응급환자 사망률을 줄이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한 경북닥터헬기가 1년 6개월 만에 500회 출동의 대기록을 세웠다. 안동병원은 “닥터헬기는 지난해 125회, 올해 375회를 출동해 하루 1회 이상 응급환

자 이송과 치료임무를 수행했다”고 밝혔다. 또 헬기이송환자 462명을 분류한 결과 중증외상환자가 162명(35%)으로 가장 많았고 뇌질환 111명(25%), 심장질환 58명(13%), 호흡곤란, 임신부 등 기타응급환자가 128명으로 나타났다.

안동성소병원

청송경찰서와 의료협약



안동성소병원(병원장 김종홍)은 지난 12월 2일(화), 청송경찰서와 업무협약을 맺고 상호협조체계 구축과 지역 의료지원 및 자원봉사자 지원 등에 힘을 모으기로 했으며, 개원 105주년을 맞아 의료 혜택이 취약한 지역사회 곳곳을 보듬는 의료기관으로 거듭나기 위해 힘쓰고 있다.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협력병원 만남의 장’ 가져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병원장 박대경)이 수도권 병원으로 환자 이탈을 방지하기 위해 의뢰환자의 신속한 치료를 위한 병원협력체계 구축에 나섰다. 지난 11월 25일(화) 구미BS호텔 대연회장에서 ‘협력병원 만남의 장’을 가지고 협력병원원과 상생 및 공동 발전의 길을 모색하는 한편, 긴밀한 협조가 필요한 응급의학과, 산부인과, 심장내과를 비롯한 각 진료과와 교수들은 협력 병원장과 의견

교환 및 협력관계를 돈독히 다지는 계기도 마련했다.

홍보대사 초청 간담회 열어



순천향대학교구미병원 교육관에서 열린 홍보대사 초청 간담회는 2014년 확장된 종합건강증진센터 및 소화기센터 소개와 새로 도입된 MDCT 의료장비 설명, 홍보대사들의 활동사항 등으로 이어졌다. 이날 홍보대사들은 의료진과 함께 종합건강증진센터와 소화기센터를 직접 둘러보고 MDCT 개소식 테이프커팅식에도 참여했다. 특히, 개원 35년에 맞춰 현재 35명의 홍보대사가 활동중이며 이와 별도로 8개국 12명의 외국인홍보대사를 위촉, 외국인들의 진료 편의를 돕고 있다.

환자들과 함께하는 송년행사



지난 12월 18일(목), 병원 로비에서 펼쳐진 행사는 의료진들이 직접 꾸민 ‘신나GO 즐겁GO 행복하GO’ 공연으로 진행됐다. 이날 행사를 위해 의사, 간호사들은 한달 간의 준비기간을 가졌으며, 총 9팀으로 구성된 공연팀은 플룻4중주, 성악, 기타연주, 아이돌댄스, 발리댄스 등 다양한 재능을 선보이며 환자들에게 감동과 재미를 선사했다. 1부 의료진 공연에 이어 2부는 환자 노래자랑 대회가 마련되어 환자들도 노래 실력을 뽐냈다. 행사 중 퀴즈로 환자들에게 상품을 전달했으며 노래자랑 참석자에게 전원에게 선물을 제공했다.

내가 보었던 장 박사님



전 경 흥 원장
동산가정의학과의원(문경)

거실 창문을 여니 보슬보슬 눈이 내린다. 벌써 우수와 경칩이 지났는데 이것은 기상이변이다. 문득 오래 전 눈이 드물었던 부산에서 기상이변으로 눈이 많이 내렸던 날의 감동적인 일이 생각났다. 그 당시에 복음병원장과 부산의대 학장직을 겸임하신 장 박사님은 가정 형편상 학업을 중단한 나를 측은히 여겨 복음병원 임상병리실에 근무할 수 있게 하셨다.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며 사랑과 격려를 해주셨다. 나는 복음병원에서 장기려 박사님의 참 인술을 베푸시는 참 의사상을 바라보며 존경과 감사의 마음을 가졌었다.

장기려 원장님은 수술을 시작하기 전 꼭 수술실요원들과 기도를 하셨다. 그리고 장시간에 걸친 수술을 마치면 샤워를 하시고 강당에서 송도 앞바다를 바라보며 노래를 부르곤 하셨다. 레퍼토리는 오솔레미오, 까로미오벤 등 다양했다. 직원들이 노래 소리에 매료되어 박수를 치며 앙코르를 외치면 박사님은 “오늘 수술이 잘된 것 같아서! 다음 기회에!” 하시곤 외과 외래로 종종걸음을 치며 가버리셨다. 복도와 대기실의 환자들은 대부분 이복에서 피난 온 사람들이라 함경도나 평안도의 사투리로 왈차지껄하여 마치 국제시장 한 복판 같았다.

환자들 중에는 퇴원을 하며 “장 박사님 수술을 잘해주셔서 살았습니다만 병원비를 다 내고 나면 집에 가서 양식 살 돈이 없습니다.” 하소연을 하면 환자의 보호자처럼 원무과로 가 양식 살 돈만큼만 돌려주라고 부탁을 하시곤 해서 원무과에서 애를 먹는 경우도 종종 있었다. 한번은 경남 하동에서 온 어부 김씨가 우측간엽을 절제했는데 수박에 검은 씨 박혀 있듯 간에 디스토마가 총총히 박혀 있었다. 하동 등지에서는 날것으로 밀물고기를 먹어 디스토마 환자들이 많을 때였다. 나는 그 절제된 간을 사진으로 찍어 장 박사님이 외과 학회에 보고하는데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하는 것을 도왔는데 이 환자는 장 박사님께서 자기 간을 너무 크게 떼어내어 힘이 없어져 어부 일을 할 수 없다며 생떼를 썼다. 장 박사님은 의학 공부에 도움을 줘서 고맙다 하시며 웃으면서 진료비 전액을 면제하고 퇴원시켰다. 이렇게 환자들의 편에 선 장 박사님의 병원 운영으로 한때 병원에 위기가 있었다. 그러나 장 박사님이 산정현교회 장로시라 교인들 중 독지가들이 경제적인 후원도 했다. 또 장 박사님이 외과수술의 권위자라는 명성을 얻게 되자 부유층의 환자들이 수술을 받으러 왔고 쾌유에 대한 감사 표시로 많은 금액을 회사하기도 했다.

1960년 12월 24일 크리스마스 이브는 병원 후원단체인 미

국선교회와 주둔 미군들이 제공한 칠면조 요리로 식탁이 푸짐했다. 나는 처음으로 칠면조 요리를 맛보았다. 그날 장원장님이 사택에서 성탄 이브를 즐기자고 하셔서 우리는 머리에 눈을 맞으며 사택으로 갔다. 장 박사님은 우리를 반갑게 맞아주셨다. 응접실에는 빵과 음료수 그리고 과일들이 준비되어 있었다. 우리들은 크리스마스 캐럴을 연창했고 장 박사님은 사전에 약속된 특순 카로미오벤을 부르신 후 화이트크리스마스는 앙코르송으로 부르셨다. 내가 오락 순서를 진행했는데 장 박사님은 어린아이처럼 울동과 재롱으로 우리를 폭소케 했다. 모두가 어린아이들처럼 흥겨운 시간을 보냈다. 그날 밤 잠결에 비상벨이 소리가 들러 깜짝 놀라 병원으로 달려갔더니 원장님 사택에 도둑이 들었다고 했다. 우리들은 병원 현관에 있는 눈삽이며 몽둥이를 하나씩 들고 눈이 덮인 언덕 아랫길로 미끄러지듯 달려갔다. 경비원이 사택 언덕 밑을 향하여 손전등을 비추며 “이 자식아, 빨리 나와”외치고 있었다. 우리도 다 함께 “새끼야, 빨리 나와!”를 외쳤다. 체격이 튼튼한 병리과 김실장이 짹짹 달려가 도둑의 멱살을 휘어잡고 박사님 앞으로 끌고 왔다. 그런데 “김 실장, 너무 과격하게 하지 말게 우리 집 손님이야.” 하셔서 김 실장은 멱살 잡은 손을 놓았고 우리도 모두 조용히 있었다. 나도 야구 방망이를 슬며시 뒤로 감쳤다.

현관마루에는 도둑에게서 빼앗은 것인 듯한 의학 원서들이 몇 권 놓여 있었다. 박사님이 “손님, 이 책들은 내가 공부하는 책인데 몇 푼 나가지 않아요.” 하니 그 밤손님은 꿇어앉으며 어눌한 말투로 “이 높은 무식합니다. 피난 보따리 지고 온 지게로 시장에서 짐꾼으로 입에 풀칠하고 겨우 살아갑니다. 그런데 바보 같은 안식구가 또 아기를 낳았습니다. 쌀도 없고 미역 살 돈도 없고 얼음장 같은 방바닥 위에 어린 것들이 오들오들 떨며 울어대는 걸 보자 제 눈이 뒤집혀서 그만 도둑질까지 하였습니다. 제발 용서해주세요, 정말 잘못했습니다.” 하며 울기 시작했다.

장 박사님은 “참 사정이 딱하군요. 우리가 이런 분들에게 베풀을 주어야 했는데…….”

“원무과장! 내 월급을 가불해서 좀 도와주어야겠어요. 그리고 빨리 이 분이 집에 갈수 있도록 처리해 주세요.” 강한 어투의 장 박사님 말씀에 원무과장이 준비하러 간 사이 장 박사님은 수건을 가져와 그 사람의 옷에 앉은 눈

을 털어주며 “추위에 많이 떨어졌지요?” 하며 거실의자에 앉게 했다. 그리고 뜨거운 홍차를 따라 주었다. 원무과장이 가져온 흰 봉투를 그에게 주며 “앞으로 돈이 필요하거나 어려울 때는 원장실로 날 찾아오시오.” 하니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하며 그는 얼굴을 들지 못하고 집으로 돌아갔다. 장 박사님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밝은 표정으로 성탄의 사랑과 평안을 기원한다며 일일이 우리의 손을 잡아 주셨다. 그런 후 얼마 지나지 않았는데 그 밤손님이 병원청소부가 되었다. 그는 병원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일이 장 박사님께 보답하는 길이라며 날마다 이른 아침부터 열심히 싱글벙글 청소를 하고 다녔다. 늘 다정다감하고 인자하신 장기려 박사님의 밝은 얼굴이 오늘같이 눈이 오는 날에는 그리운 추억으로 떠오르곤 한다.

장기려 박사님은 안경 넘어 눈빛은 자애로웠고 만나면 늘 미소를 짓는 동안이었다. 장 박사님은 외과수술의 명의로 명성이 높으신 분이셨지만 “내가 수술을 하지만 치유케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며 겸손해 하셨다. 가난하고 병든 이들을 위해 청십자의료보협조합을 결성하고 부속병원을 운영하시던 장 박사님은 지병에 몸까지 너무 쇠약해져서 힘이 든다며 나에게 와서 도우라 하셨는데 그때 나는 경기도 광주군 보건소장으로 결핵퇴치와 모자보건 및 나병관리 특히 산아제한 시범 보건소로 바쁠 때였다. 가야한다는 마음은 있었지만 차일피일 미루다 가지 못했다. 나에게 의사의 꿈을 포기하지 말라시며 사랑과 배려를 해주셨는데 조금도 보답해드리지 못한 배은망덕한 자가 되어 죄송하고 가슴이 아프다. 그분을 존경만 하였지 그의 그림자도 따르지 못한 것을 자탄하며 시간이 흐를수록 더욱 가슴이 아프다. 그리고 이렇게 눈이 오는 날엔 그런 장 박사님이 더욱 그리웠다. 그리고 드릴말씀은 존경했습니다. 죄송했습니다.

약력

- 2003 한국문인회 수필 신인상
- 한국수필 작가회 이사, 한국장로문인회 이사
- 매일신문 칼럼리스트, 매일신문 주말수필
- 한미의사 수필상, 보령의사수필 문학상
- 전국의학도수필 심사위원장

포인세티아, 크리스마스 시즌



박 송 훈 과장
경상북도포항노인전문요양병원
의사신문 칼럼니스트



만추가 지나고 이제 겨울의 초입이다.
포근한 늦가을이 일주일 이상 계속되
더니, 12월의 첫날부터 전국적으로 한파가
찾아왔다. 갑자기 영하로 떨어진 기온 때문
인지, 아침의 도로에는 쏟아져 나온 자동차로 온갖 소음이 요란하다. 바람이 몰아치는 용
흥동 언덕배기 길에는 사람뿐만 아니라 거리를 어지럽히던 낙엽마저 사라졌다. 바닷가 도
시의 추위라 해봐야 내륙의 대구나 서울과 비교할까마는, 바람은 살을 에는 듯 몹시도 사
납고 매섭다.

차가운 날씨만큼이나 거리의 모습도 황량하고, 행인들의 옷차림과 움츠린 모습에서 계
절의 변화를 실감하게 한다. 스산한 출퇴근 골목길에는 발밑에 서걱거리던 낙엽들조차 고
즈낙했던 가을빛이 사라지고, 퇴색한 쓰레기처럼 이곳저곳 나뒹구는 모습이 보기에 안쓰
럽다.

그래도 12월, 한 해의 저녁이다. 어제는 아내가 포인세티아(poinsettia) 예쁜 모종을 베
란다 화단에 옮겨 심었다. 나이가 들어도 크리스마스에 대한 애뜻한 향수는 언제나 정겹고
가슴을 설레게 한다. 오랜 세월 기억에서 지워지지 않는 금박, 은박의 그림으로 치장한 크
리스마스카드와, 카드의 가장자리를 장식하는 특별한 관상목(觀賞木)의 추억. 포인세티아
선명한 붉은 빛은 겨울동화의 나라로 우리를 이끈다. 꽃말은 축하, 축복이라 하든가? 작은
전구들로 보석처럼 반짝이는 아담한 트리와 흥겨운 캐럴송이 있으면, 베란다 화단은 바야
흐로 한 해의 마지막을 정리하는 크리스마스 시즌이다.

연말이면 송년회를 비롯한 각 종 모임으로 분주하지만, 주말의 도심에 나가보면 왠지
활력이 없음이 느껴진다. 사람들은 넘쳐나는데 이상하게도 조용하다. 빨간 모자의 산타클
로스를 앞세운 광고판도 찾기 힘들고, 길거리 여기저기서 울려 퍼지는 크리스마스 캐럴송
마저 사라졌다. 동네 골목까지 크리스마스 흥취를 한껏 돋구어주던 캐럴송이, 언제부터인
가 도심의 상가나 커피숍에서조차 자취를 감춘 것이다. 몇 년간 지루하게 계속되는 경기침
체 때문인가? 세월호를 비롯한 여러 가지 안전사고로 얼룩진 사회 분위기 때문인가?

대중음악계는 그 흔하고 흔하던 캐럴 음반을 제작하려 들지 않는다. 캐럴 음반을 내보
야 팔리지가 않기 때문이다. 예전에는 비교적 적은 비용과 노력으로 캐럴송을 취입하면,
12월 한 달 동안 수 만장씩 음반이 팔려나갔던 시절이 있었다. 하지만 요즘은 디지털 음원
이 음반을 대체하고, 누구나 쉽게 인터넷에서 다운 받을 수 있기에 캐럴 음반에 대한 수요
가 실종된 것이 또 다른 원인이라 할 수 있겠다. 캐럴송이 없으니 연말의 분위기가 어쩐지





침묵의 세계로 빠져 들어가는 느낌이 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별로 수익이 되지 않는 캐럴 시장보다는, 대중 미디어를 통한 크리스마스 공연과 행사에 관련된 문화가 집중되는, 그리 달갑지 않은(?) 세태의 반영이다.

볼 만한 크리스마스 공연으로는 차이코프스키의 3대 발레 명작 중의 하나인 ‘호두까기 인형’이 유명하다. 호두까기 인형은 1892년 러시아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초연(初演)된 이후 대표적인 크리스마스 공연의 하나로 자리 잡았는데, 크리스마스 전날 밤을 배경으로 주인공 소녀가 겪는 환상적인 여행이 주

된 내용이다. 호두까기 인형극은 배경의 무대와 의상이 풍부한 볼거리를 선사하므로, 설사 비용이 좀 든다 하더라도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크리스마스를 즐기기에 부족함이 없으리라.

연말이 다가오면서 밤의 거리는 점점 화려하게 바뀌어 간다. 작은 전구들과 솜털, 리본으로 장식한 크리스마스 트리, 11월 말이면 대부분의 호텔이나 백화점의 입구와 상가의 정원에 세워진다. 그리고 차츰 시가지 공원이나 도로 중심의 가로수들로 기다란 크리스마스 트리의 행렬이 이어진다.

이미 보편화된 크리스마스 문화, 가정에서도 아이들은 예쁜 트리 장식을 만들기 위해 일 년을 기다려왔다. 마르틴 루터가 사람이 예수님의 빛을 받으면 주변에 신성한 빛을 전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상상하며 처음 만든 전나무 장식,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그리고 아파트 주차장에서도, 황량한 도시의 겨울밤 풍경은 반짝이는 상록수들의 불빛 장식으로 채워지기 시작한다.

오락 캐럴송이나 변변한 크리스마스 트리 하나 없었던 시절, 크리스마스이브에는 새벽까지 성탄절 찬송을 하며 동네를 한 바퀴 돌아다니는 게 전부였다. 종교적 믿음이라기보다는 교회 행사로 함께 어울려 다니는 것이 마냥 즐거웠던 어린 시절의 추억이다. 성년의 대학생이 되면서, 야간통행금지가 해제되는 일 년의 이틀 중 하루, 밤거리의 자유를 만끽하며 포장마차에서 새벽까지 술잔을 비우고 다녔던 젊은 날들도 있었다. 그리고 경제적 발전과 함께 사회경제적 풍요로움이 더해지면서, 크리스마스 시즌의 거리는 경쾌한 캐럴과 아름다운 트리의 장식, 봄비는 사람들로 넘쳐나게 되었다.

크리스마스 문화가 바뀌고 있다. 사회적 흐름이 개인과 가족 중심의 성향이 되면서, 문화적 컨센서스 역시 탈집단적으로 변하고 있다. 크리스마스 역시 ‘나 홀로’ 또는 ‘둘만의’ 문화로 탈바꿈하고 있다. 다중을 위한 전 시적인 크리스마스 행사는 줄어들고, 온 거리에 울려 퍼졌던 캐럴송도 이젠 듣기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크리스마스가 연인 관계나 가족적인, 조용하고 차분한 분위기로 변해가는 것은 문화적 세태의 반영이기도 하다. 물론 여유가 있는 계층에서야 집 안팎에서 화려한 트리 장식이나 식사를 포함한 가족 행사, 값 비싼 선물 등 무엇인들 못하랴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사회로서는 크리스마스가 교회와 종교인들에게 돌아가고, 일반인들에게는 가족 간, 지인 간의 소박한 나눔이 바람직한 방향일지도 모른다. 올해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아담한 가정용 트리뿐만 아니라, 유난히도 아이들 장난감이 불티나게 팔려 품귀 현상을

사회 문화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억이, 즐거웠던 날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포근했던 옛 사람들의 인정까지야 지워지겠는가.
크리스마스카드, 캐럴송, 그리고 트리는 살아있는 우리 시대의 추억이며 낭만이다

빛고 있다고 한다. 경기가 어려워도 아이들에게만은 씩씩이를 줄이지 않겠다는 부모들의 애뜻한 마음이지만, 이런 문화적 세태의 뒤편에서 정작 어버이 노인들은 가족에서 소외되고 있는 건 아닌지 우리 자신을 한번 뒤돌아 볼 필요가 있다.

크리스마스나 더불어 연말의 흥청거리던 분위기가 가라앉고 있는 것은 경제적 불황이 또 다른 원인이 된다. 국내뿐만 아니라 세계적 경제 상황도 녹록치 않다. 아직도 미국은 금융위기의 여파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유럽과 마찬가지로 중국, 일본에도 경기 침체의 그늘이 드리우고 있다. 이런 어려운 여건 속에서 우리 한국인들 자유로울 수 있으랴. 매출이 증가하지 않는 백화점과 상가의 연말 불황은 이미 오래 되었고, 심지어 공공기관까지도 크리스마스 행사나 트리의 수를 줄이거나 없애기 위해 고심 중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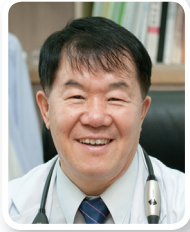
지난 밤 서재를 뒤지다가, 낡은 책갈피에서 우연하게도 시대적 파노라마 같은 크리스마스카드 몇 장을 발견했다. 곁장에는 오랜 기억 속에 얼굴마저 잊어버린 옛 친구와 은사님의 이름이 적혀 있었다. 카드 전면에는 금박, 은박으로 그려진 눈 내리는 초가집, 조금은 촌스럽긴 하지만 촛불과 포인세티아 꽃잎의 장식이 기억에 새롭다. 누렇게 바랜 종이에 또박또박 정성으로 쓰인 글, 감사하고 격려하는 진솔한 당신의 마음이다. 디지털의 편리한 인터넷 시대에 옛 사람들의 아날로그적 인정의 깊이와 넉넉함, 오랫동안 우리는 너무 많은 것을 잊고, 잃어버리며 세상을 살아온 건 아닐까?

올해의 크리스마스 시즌은 포인세티아를 옮겨 심는 아내의 정겨운 향수에서 시작한다. 어린아이라고는 첫 돌도 안 된 손주 놈 밖에 없으니 트리까지 준비할 필요가 있을까. 그동안 잊어왔던 고마운 분들에게 보낼 카드라도 만들어 볼까. 일 년에 한 번 크리스마스카드를 준비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 로맨틱한 캐럴송이 더해진다면, 아파트 작은 베란다 공간은 포인세티아 잎의 청정한 붉은 빛깔과 로즈마리의 질푸른 향기로 더욱 풍성해지리라.

사회 문화가 바뀌고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도 살아가는 사람들의 추억이, 즐거웠던 날들의 기억은 사라지지 않는다. 가난했던 그 시절에 대한 그리움과 향수, 달라져봐야, 바뀌어져봤자, 포근했던 옛 사람들의 인정까지야 지워지겠는가. 크리스마스카드, 캐럴송, 그리고 트리는 살아있는 우리 시대의 추억이며 낭만이다. 크리스마스 시즌, 사람들로 붐비는 시가지에는 구세군 자선멤버의 딸랑이는 종소리, 캐럴송의 빈자리를 채우며 내 귓전을 잔잔히 맴돌고 있다.



제2회 네팔 해외 의료봉사와 KD 밴드



이종규 원장
연세가정의학과의원(울진)

서류를 점검하고 의료 장비와 의약품을 챙기고 포장하는 일은 참으로 번거롭기만 하다. 해마다 대장정을 떠날 때나 몽골이나 네팔 또는 러시아의 일정이 잡히면 직원들에게 업무 이외의 일을 떠맡기곤 했다. 이 자리를 빌려 다시 한 번 그들에게 정말로 감사하는 마음을 전하고 싶다.

우리가 인천 공항을 이륙하고 지루한 7시간을 지나면서 가까스로 카트만두의 공항에 착륙했을 때의 시원함을 이루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없다. 우려와는 달리 전혀 세관검사나 비자 문제로 거추장스러운 일은 전혀 없었다. 공항에서 미리 대기하고 있던 Udaya 교장 선생님을 다시 만났을 때 그 반가움 역시 말 못할 희열이나 다름없다.

다음날 일찍 카톡 끈들의 격려에 눈이 뜨였다. 틀에 박힌 일상적인 생활에서 벗어나니 몸시도 신선하게 느껴졌다. 모텔 주인은 아예 모텔 전체를 송두리째 내어 주면서 진료 업무에 적극 협조하였다. 2층 식당 홀을 진료실로 꾸미고 대기실과 초음파실, 그리고 기본 혈액 검사실도 쉽게 세팅을 하였다. 오전 10시부터 진료를 시작해서 마무리 할 때까지 107명의 외래 환자들을 살피며 투약을 했다. 울진 읍내에서 개업을 하고 있는 이진홍 선생의 눈부신 활약으로 진료 첫날부터 아주 말끔하게 마무리를 하였다. 환자들의 유형은 어디에서나 비슷했다. 주로 소화기계통과 호흡기질환이 대다수였다. 간혹 특이한 경우는 다음해의 진료 팀을 구성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따로 메모를 했다.

둘째 날은 학교 학생들의 혈액검사가 예정되어 있다. 아침에 학교에 가자마자 바로 밴드 연습실로 들렀다. 마침 동행한 이상민, 최영운 선생님과 김효근 악단장님은 학생들을 지도하시다가 돌연 특별 연주 시간을 갖기로 했다. 그때 우리들 일행은 모두 뜻하지 않은 학생들의 연주에 너무 감동을 받았다. 애국가와 네팔 국가 그리고 아리랑에 이어 경동고등학교 교가를 말끔하게 연주를 했다. 이어서 타이타닉을 연주하는 바람에 동행한 윤영란 선생은 기어이 눈물



을 흘리고야 말았다. 여기서 우리 애국가를 들을 줄은 전혀 생각하지도 못했다며 학생들의 열성과 김효근 단장님의 노고에 깊은 경의를 표하기도 했다.

네팔처럼 아직 개발이 되지 못한 나라일수록 학교보건의 중요성이 특히 강조가 된다. 지역주민들의 건강관리나 질병 치료보다 어린 학생들의 정기적인 관찰과 건강 검진은 예방의학적 접근과 방법이 요구된다. 국가 재정이 열악한 나라일수록 학교보건은 우선순위에 밀리고 있다. Nepal Medical Camp가 답사 때부터 특히 강조 했던 부분이었다. 그리고 그건 타국에서 진료와 더불어 좀 더 친척적이고 미래 지향적이며 의료 사고를 미연에 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기도 했다. 의료는 어느 나라에서나 외부의 간섭을 받지 않으려는 그 나라의 자존심이나 다름없다. 많은 저개발 국가들이 유독 의료분야를 개방하지 않는 이유 중의 하나다.

지난해와 마찬가지로 안병관 동기의 수고로 전교생 600명중 250여명의 학생들의 혈액을 채취하고 빈혈 검사는 물론 일반적인 혈액 검사를 실시하였다. 일부는 시약이 고갈되는 바람에 채취한 혈액은 국내로 반입을 해서 마무리 검사 결과를 정리하고 있다. 검사 결과는 의사의 소견을 첨부해서 학교로 보내주고 있다. 그것은 다음해의 캠프를 위해서도 필수적이며 상호간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는 아주 중요한 일이기 때문이다.

셋째 날은 이번 캠프의 하이라이트나 다름없었다. 밴드 팀은 매일 아침 진료 팀보다 먼저 학교에 가서 학생들을 지도하면서 최선을 다했다. 그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린다. 기회가 된다면 이분들과 다시 함께 오고 싶다. 아침 일찍 카트만두 대학의 전직 총장을 지내셨던 생화학 교수를 만나기로 되어 있었다. 그는 매우 영향력이 있는 분이며 모든 사람들로 부터 칭송이 자자한 분이라는 소개를 받았다. 그리고 그 분과의 대화를 통해서 많은 것들이 쉽게 해결될 수 있다는 교장선생님의 암시가 있었던 터였다.

지난해부터 카톡으로 주고받았던 안건들의 의견을 교환하는 일은 매우 중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영향력 있는 전직 총장님과의 면담은 아주 시기가 적절했다. 주제는 진료 외적인 일이라서 장담을 할 수는 없었다. 그러나 막상 대화중에 의외로 간단하고 명료한 해결법을 제시하는 바람에 기대하지도 않은 많은 성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

지난해에 교장선생님을 학교 내에 한국어 학과를 개설하고 싶어 했다. 그리고 사실 그건 의료와는 너무도 동떨어진 일이라서 크게 관심을 두지는 않았다. 하지만 작금에 와서 두 나라 사이의 교류는 물론이고 활동이 증가 일로에 있는 것들을 감안한



다면 분명히 두 나라의 친선을 도모하는 방법임에는 틀림이 없다. 적극적으로 생각해 보기로 하고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 한 후 돌리켈 병원장을 만나기 위해 서둘러 발걸음을 옮겼다. 병원은 참으로 넓고 규모가 컸다. 내년에는 치과진료를 포함시키고 싶은 욕심에 치과 병동과 부인과 병동 그리고 혈액투석실과 심혈관 조영 실을 둘러보았다. 아울러 캠프에서 이송하는 환자들의 추적 관찰이나 응급환자들의 사후 처치를 부탁했다. 의사라면 당연한 일인데 걱정하지 말라며 오히려 안심을 시켜주니 고맙다. 치과 팀이 온다면 굳이 야외진료를 고집하지 말고 현지의 치과병원을 그대로 이용할 수 있는 편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이며, 부인과 환자들의 경우 수술이 필요한 환자에게는 협진 하는 조건에서 수술실을 빌려주겠다는 약속까지도 서슴지 않았다. 병원장은 오히려 적극 반기는 기색이다. 이후 바로 학교 행사에 참석을 하였다.

시장님과 교육청 관계자가 내빈으로 참석하였고, 돌리켈 병원의 세미나에 참석차 방문한 미국인 의사가 함께 했다. 내친김에 그와 간단하게 수인사를 하고 서로간의 소개를 했다. 행사는 두 나라의 국기를 향한 국민의례를 시작으로 행해 졌다. 5학년 여학생 합창단은 아주 정확한 발음으로 애국가 1절과 아리랑을 불러 주었다. 애국가와 네팔 국가가 연주될 때의 그 자랑스러움이란 이루 표현할 수가 없었다. 그리고 지난해 우리 손으로 창단한 KD 24 밴드는 아주 말끔하게 반주를 해 주었다. 가슴 뭉클한 감격을 느끼는 순간 우리들 모두는 치밀어 오르는 뜨거운 격정으로 목소리가 떨렸다. 누가 먼저라고 할 것 없이 애국가와 아리랑을 합창한 후 우리들 모두는 서로간의 흥분된 얼굴을 바라보며 뜨거운 열정을 억누르지 못했다. 이후 조금은 지루했지만 행사가 끝날 무렵 "싸이"의 강남스타일은 또 한 번 운동장과 무대를 뒤편벽으로 만들면서 환희의 도가니로 몰아넣었다. 어설픈 몸짓으로 말춤을 추고 있던 필자에게 미국인 의사는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박수를 보내주는 모습이 고맙기만 했다. 뜨거웠던 열정이 식을 때쯤 모델로 돌아오니 저녁만찬과 더불어 색다른 흥분의 시간이 준비 되어 있었다. 트럼펫과 트럼본, 그리고 색소폰으로 이루어진 환상의 밴드 팀은 저녁식사후의 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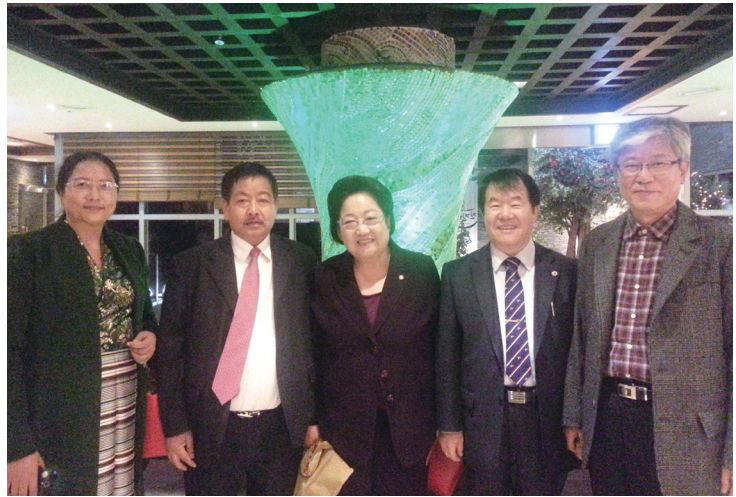
기를 조용히 달래 주었다. 네팔의 밤하늘을 울려 퍼지던 트럼펫 소리는 아직도 귓가에서 은은하게 들려온다. 밤하늘의 트럼펫과 트럼본, 그리고 색소폰의 선율이 그렇게 멋지고 가슴속에 오래 남아 있을 줄이야....!

진료 팀과 밴드 팀의 일정이 마무리되면서 관광 일정만 남아 있었다. 대개 어느 나라든 진료가 끝나면 관광을 통해서 새로운 교분을 쌓기도 하는 것이 관례다. 우리 일정은 부처의 탄생지인 룸비니를 돌아보고 포카라의 페와 호수와 히말라야의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즐기고 잠시 동안의 휴식을 갖기로 했다. 룸비니로 가는 길은 지루하고 짜증스럽기도 했지만 모두들 잘 견디어 주어서 고맙기만 했다. 룸비니는 성지인 만큼 느낌도 다양했다. 한국사원까지 찾아보고 부처의 말씀을 다시 한 번 되새겨 보는 좋은 시간이었다. 룸비니 호텔에서 하루 밤은 또 다른 행사가 벌어지기도 했다. 일행 중의 유 진 연합뉴스 기자의 생일이어서 케이크를 자르고 일행들만의 작은 생일 축하연이 벌어지기도 했다.

다음날 서둘러 룸비니 사원을 돌아보고 포카라로 향하는 일행들은 피로한 모습이 역력했다. 일정을 미룰 수는 없었다. 차량으로 포카라까지 이동하는 일은 힘들고 지칠 대로 지친 일행에게는 고역이었다. 하지만 그 험한 길을 횡단하면서 네팔의 역동적인 모습이며 생각지도 못했던 룸비니의 평야 그리고 젊은 인구와 때 묻지 않은 자연을 한편으로는 부러워하고 있었다. 우리 일행이 포카라의 호텔에 체크인하고 휴식을 취할 때쯤에는 어느 정도 긴장도 풀어지고 편안한 시간을 마음껏 즐기고 싶었다. 포카라 시내의 불야성은 어느 유원지에서 보는 그런 모습이었다. 여기라고 예외는 없었다. 아침 일출을 핑계로 모두 일찍 잠자리에 들었다.

새벽 4시 30분경부터 서둘러 일출을 보기위해 부산을 떨었다. 해발 1500 미터가 넘는 곳까지 차량으로 이동을 하며 기대 반 실망 반으로 겹쳐지기 시작했다. 엄청난 차량의 혼잡으로 과연 제대로 일출을 볼 수 있을지 회의에 젖기도 했다. 일출이라면 오로지 수평선위로 떠오르는 바로 그 태양의 모습만을 기억하고 있었다. 하지만 빙하로 이루어진 호수위로 떠오르는 태양의 장엄한 모습은 또 다른 모습이었다. 호수에서 피어오르는 물안개 위로 구름이 깔려 있고 그 위로 태양이 모습을 드러내 보였다. 동해바다에서 보던 바로 그 태양이다. 반대편 구름 위로 우뚝 솟아 있는 백설의 하얀 언나 푸루나와 마차푸추레 그리고 다른 히말라야의 아름다운 모습에 그만 넋을 잃고 말았다. 정말로 예쁜 모습을 보면서 히말라야 커피를 마시는 일은 아주 매혹적이고 상큼한 즐거움을 느낄 수가 있었다. 수많은 사진을 찍으며 하산을 할 때는 이미 어둠은 사라지고 아열대의 뜨거운 대기 온도는 모두를 무기력하게 만들기 시작했다. 박쥐 동굴을 한차례 더 돌아보고 포카라 공항으로 이동했다.





카트만두로 향하는 비행기는 1시로 예정되어 있었다. 공항 체크인이 끝났을 때 난데없는 방송으로 우리는 3시간이나 더 기다려서야 카트만두 행 비행기를 탑승할 수가 있었다. 지독한 안개로 인해서 카트만두 공항은 세 시간 가까이 항공기의 이착륙이 허용되지 않았던 탓이기도 했다. 카트만두에 도착했을 때에는 우리가 타고 다니던 승용차는 벌써 도착해서 일행을 기다리고 있었다. 어둑어둑한 길과 심한 교통 혼잡을 뚫고 돌리켈에 도착한 건 오후 7시가 넘어서였다. 서둘러 교장 선생님은 또 캠프 화이어를 준비했고 네팔에서의 마지막 밤이 못내 아쉬워서 우리는 학교 전체 선생님들과 조출한 만찬을 즐기기로 했다. 트럼펫이 울려 퍼지면서 돌리켈의 하늘위에서 떨어지는 밝은 유성이 오늘따라 밝고 찬란하게 보이는 건 혼자만의 느낌은 아닌 듯 했다.

인천 공항에 도착했을 때 갑자기 엄습하는 냉기에 몸이 움츠러든다, 끝까지 힘을 실어주던 카톡 끈들에게도 고마운 마음을 전하고 싶다. 내년에도 이 일은 계속 이어 질게 틀림없다.

후 기

지난 3년 전부터 기획했던 일들이 겨우 싹을 트고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모습이 얼마나 흐뭇한지 모른다. 이번엔 우리 동기생들이 뚝뚝 뭉쳐서 함께 성원해주는 모습이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모른다. 비록 작은 성취에 불과하지만 이룩했을 때의 희열은 무엇과도 비유할 수가 없다. 히말라야의 산맥의 랑땅 산마루 중턱의 작은 마을에서 벌어진 일이지만 “KD 24” 모두의 일이고 “경동” 이라는 모교의 기치아래에서 이루어 졌다는 성취감은 우리들 모두의 즐거움이나 다름없다. 멀리 SF에서도 지원을 아끼지 않았고, 심지어 오래전부터 불편을 모아 아낌없이 기증을 해준 동기생들에게도 감사한 마음을 전한다. 동기 회장단의 관심과 격려 등으로 이제 “KD 24 Brass Band”는 제대로 구색을 맞출 수 있으니 자랑스럽다. 경동 밴드부가 해체 되었을 때 가장 가슴 아파했던 밴드부장 장동호 회장의 심정을 십분 이해하는 마음으로 KD Band 에 관심을 갖고 보살펴 주어야 한다. 다시는 해체되는 일이 없도록 그들에게 격려와 희망을 아끼지 않도록 해야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한걸음 더 나아가 우리들 동기생들의 힘으로 한국어 학과를 설치해 보는 일은 어떨까? 치과진료를 포함하면 더욱 빛을 발할 게 틀림없다. 이제 은퇴하고 나서 보람 있는 일에 남아있는 정열을 던져 보자. 역시 바람직한 삶이 되지 않을까? 그제 삶의 멋이다. 좀 더 넓은 안목과 미래 지향적인 생각으로 현실에 너무 연연해하지 않는 멋진 노후를 생각해 볼 때가 되었다. KD 24 라면 충분히 그렇게 할 자신이 있다. 그리고 그건 이제부터 시작이다.

KD 24 모두에게 항상 건강하고 보람 있는 삶이 함께하기를 기원한다.

Camino de Santiago

산티아고 가는 길 II

이 인 태 기계의원 원장(포항)



01 경당내 프레스코화

마을 외곽에 오래된 작은 성당이 나와서 잠시 들러 기도드리고 초를 사서 봉헌했습니다. 성당을 지키는 현지인이 한국인이나고 묻더니 친절하게도 성당벽화가 비잔틴양식의 프레스코화라고 공책에 한국말로 적혀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한국 사람들이 많이 다녀갔다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오고 오르막길은 왜 이리도 길게 느껴지는지, 집사람과의 대화도 끊기고 앞서거나 뒤서거나 길을 갑니다. 아르수아(Arzuoa)에서 간단하게 점심을 먹고 나선지 얼마 지나지 않아 대가족이 순례 길을 가고 있었는데 3대가 같이 걷는 모습이 보기 좋습니다. 특히 손자는 비닐 커버가 씌워진 작은 수레에 게임기를 가지고 놀면서 가고 있는데 참 부러웠습니다. 사진 부탁을 해서 단체사진도 찍어주었습니다.

호텔이 있다는 살세다(salceda)에서 하루일정을 마치려고 했으나 다음날 야고보대성당에서 정오미사를 볼 욕심으로 해가 질 때까지 좀 더 가기로 했습니다. 어둠이 깔리기 직전 루아(Rua)에 도착 호텔을 잡았습니다(이날 30km쯤 걸음). 50유로로 알베르게에 비해 비쌌지만 멜리테의 호텔보다 분위기가 있습니다. 저녁식사도 양도 적당하고 맛있었습니다. 디저트로 샹그리아 한잔하고 다음날 Santiago 입성을 위해 일찍 꿈나라로 들어갑니다.

◀ 몬테 데 고조 비에 흠뻑 젖어



02 산티아고 입구의 건축물 03 산티아고 대성당

다음날 새벽 6시에 일어나 후레쉬를 비취가며, 부슬비를 맞으며 페드로소우(Pedrouzo)를 지나 유칼리 나무숲 길을, 물웅덩이를 요리조리 피해가며 걷습니다. 이른 새벽인데도 사람들이 많이 보입니다. 아마도 정오미사에 참석하려고 다들 일찍 나선 모양입니다. 아침 9시 경 작은 마을식당에서 cafe con leche(커피+우유)와 갓 구운 토르띠야(오믈렛)로 아침 식사를 하고 길을 나서는데 동양 아가씨 두 명이 정답게 걷고 있어 물어봤더니 한 아가씨는 우리나라 여대생이고 다른 쪽은 일본인인데 순례자 길에서 만나 친구가 되었다고 합니다. 순례자 길을 걷는 모두가 친구이자 동료라는 친근감을 느낍니다. 일상생활에서는 느낄 수 없던 열린 마음, 타인에 대한 배려심 등이 생깁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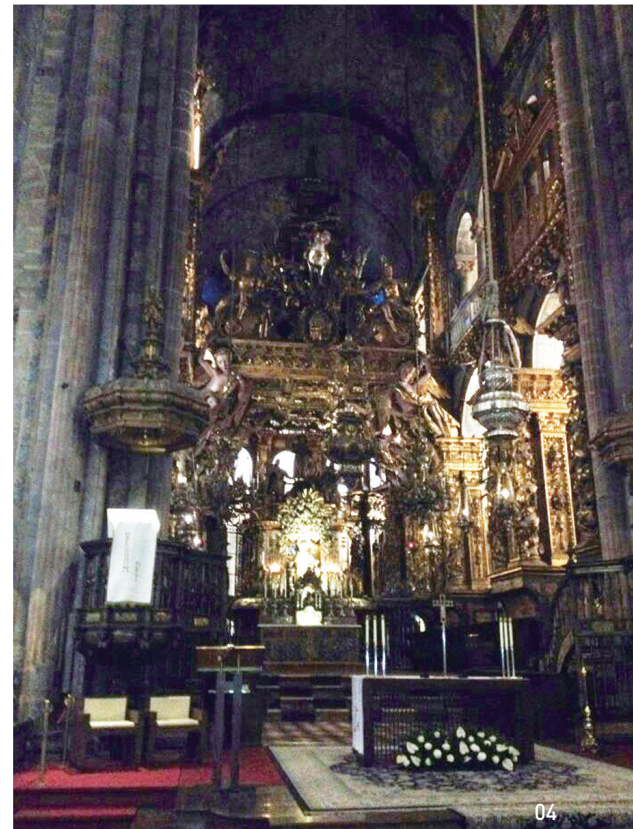
비바람은 점점 더 세지더니 Santiago 전 마을인 몬테 데 고조(Monte de Gozo)부터 절정에 달합니다. 비웃도 소용없습니다. 목 줄기를 타고 속옷까지 젖고 신발은 바지에서 흘러내린 빗물로 흥건해져 발걸음마다 소리가 납니다. 속세에 물든 육신을 깨끗이 씻고 성지에 들어 오라는 듯합니다(다음날 Finisterre땅끝 마을에서는 몸속까지 정화합니다). 머리부터 발끝까지 훌쩍 젖었습니다. 드디어 Santiago를 알리는 표지판이 나타나고 역 기억자모양의 큰 건축

물이 보이는데 한 여자 분이 그곳에 한손을 대고 기도하는 듯 자세히 보니 사리아에서 보았던 머리에 큰 꽃을 꽂아 집사람한테 ‘금달래같다’ 고 한 중년의 여자 분이었습니다. 우리도 빨리 걸어왔다고 생각했는데 우리 보다 먼저 도착하다니~ 도시 입구에서도 한참을 걸어서야 겨우 야고보 대성당이 보입니다.

시간은 11시가 벌써 넘었습니다. 어쩔수 없이 근처 알베르케에 들어가 화장실에서 번개와 같은 속도로 마른 옷으로 갈아입고 조리신고 복장은 불량하지만 미사시작 직전에 성당제대 옆 맨바닥에 겨우 자리를 잡았습니다. 성가와 함께 미사가 시작되는데 나도 모르게 참을 수 없는 눈물이 글썽입니다. 건강하게 살아 지금 여기에 온 것, 사랑하는 나의 반쪽을 만나 결혼하고, 예쁘고 자랑스러운 두 자녀를 보내 주신 것 등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에 눈물이 나온 것 같습니다.

미사 끝날 쯤 도르레에 걸린 대향로를 피워 장정 여러 명이 잡아 당겨 성당 제대 앞을 왔다 갔다 하면서 높은 대성당 천장까지 올라갈 때는 환호성이 터졌습니다. 미사를 마치고 나와 보니 그렇게 쏟아 붓던 비는 소강상태로 변했습니다. 숙소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고 일어나는데 왼쪽 무릎이 아파옵니다. 10유로에 산 빨간 우산을 지팡이삼아 순례자증명서 (compostela)를 발급받으러 딸이 만들어준 안내책자를 보면서 순례자 사무실을 찾아 갔습니다. 여행 출발 전에 우리 부부만을 위한 산티아고 순례 길을 위한 안내서를 딸 부부가 책자로 만들어 줘서 스마트폰 유심 칩 갈기, 꼭 필요한 스페인 말, 순례자길 숙소가 기록된 지도, 식당에서 메뉴 보기, 순례자 사무실위치, 땅 끝 마을 정보 등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만 수록해서 얼마나 큰 도움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Compostela을 받고나니 얼마나 마음이 부듯한지요. 내친김에 대성당을 사이에 두고 반대편에 있는 프란치스코성당을 찾아가 프란치스코성인의 산티아고 방문 800주년을 기념하는 증서도 덤으로 받았습니다.

순례자길 둘째 날 40km의 강행군 덕분에 하루의 시간적 여유가 생겨, 내일은 땅끝마을(Finisterre)에 가보기로 하고 Santiago 관광에 나서서 젓은 트레킹화 대신에 신을 스페인산 단화도 사고 선물가게도 기웃거리 봅니다. 알베르케에서 주인아저씨가 지도(mapa)를 펴고 가르쳐 준대로 30분 정도의 거리를 걸어서 다음날 숙소인 tryp santiago 호텔도 확인하고 호텔 front desk의 친절하고 잘생긴 '헤수스'의 도움으로 내일 아침 9시에 check in 해도 된다는 것과 모레 비고(vigo)로 가는 기차를 탈 역도 확인 해놓으니 마음이 푸근해집니다.



04 산티아고 성당 제대와 대향로

저녁 식사를 하러 한 식당(malak bistro)에 들어 갔는데 메뉴판을 보니 채식주의자를 위한 식당이라 디스꼴베(죄송합니다)를 외치고 황급히 빠져나와 적당한 식당이 있는지 미로와 같은 골목을 헤메고 다닙니다. 한참을 지나 집사람에게 지도를 보자고 말하니 갑자기 표정이 어두워집니다. 아까 식당에 가방을 두고 왔다는 겁니다. 갑자기 하늘이 노래집니다. 이거 국제 미아가 되겠구나! 제가 전망증이 심해 물건을 잘 잃어버리는 관계로 집사람이 여권 돈 비행기 기차표 다 갖고 다녔는데 낭패입니다. 길도 모르는데 직관에 의지해서 돌아온 길을 되찾아 뛰어갑니다. 운 좋게도 겨우 식당 malak bistro을 찾았습니다. 다행히 가방은 암전히 우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너무 무리한 여정이어서 인지 우리 두 사람이 제정신이 아닌 것 같습니다.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현지인 소개로 한 식당에 갔는데 말이 잘 통하지 않아 또르띠야(오믈렛) 1인분을 시켜야 하는데 한판(4인분량)으로 시켜 다 먹지도 못하고 식사 값으로 36.5유로 나왔는데 31유로 주고는 나머지는 팁으로 하라고 큰소리치고 나왔는데 얼마가가 종업원이 계산서 들고 나와 잘못 냈다고 붙잡습니다. 애고 망신~.



05

알베르게로 돌아와 씻지도 않고(남녀 공용 화장실에 샤워실이 같이 있음) 잠자리에 들었다가 알베르게밖에서 웅성거리는 소리에 잠을 깬습니다. 새벽 3시! 창문으로 내려다보니 좁은 골목길에 수십 명의 청춘남녀들이 술에 취해서 큰소리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밖으로 나가 한 청년에게 나는 바로 옆 숙소에 묵고 있는데 너무 시끄러워 잘 수 없으니 동료들에게 좀 조용히 해달라고 부탁했더니, 파티중이라 자기는 말릴 수 없다며 내가 직접 말하라고 따라하십니다. “por favor (제발)~~”라 하는데, 무슨 말인지도 모르고 따라서 크게 외쳐봤지만 조용 하기는 커녕 재미있다는 듯이 쳐다봅니다. 내가 속은 것 같기도 하고, 나도 대학 다닐 때 시험기간 끝나고, 새벽 동틀 때까지 포장마차에서 친구들과 술 마시던 것을 떠올리고 ‘그래~ 좋을 때다’ 하고 그냥 숙소로 돌아왔습니다.



06

뒤척이다 잠시 잠이 들었다가 집사람이 깨웁니다. 벌써 8시, 얼른 젖은 옷은 내 배낭에 넣고 tryp santiago 호텔에 투숙 깨끗한 화장실서 샤워도 하고 젖은 옷도 늘어 놓았습니다. 땅끝마을(Finisterre)에 가기위해 딸부부가 만들어준 책자 <부모님만을 위한 까미노 가이드>에 있는 연락처에 전화를 해 호텔앞에 10:30에 만나기로 약속했습니다. 보스케 알베르게를 운영하는 30대 초반의 교포 2세가 운전하는 밴을 타고 출발. 땅 끝 마을 가는 중간에 무시아(muxia)라는 곳에 들러 유조선 기름유출사고를 기록하는 돌로 쪼개진 큰 바위 와 전설에 성모 마리아가 타고 왔다는 돌배를 구경하고 다시 종착지로향합니다. 커다란 닻 모양의 철조형물이 있는 항

05 땅끝마을 표지석 06 0.00km 표지석과 함께



07 대성당 앞 집사람과 함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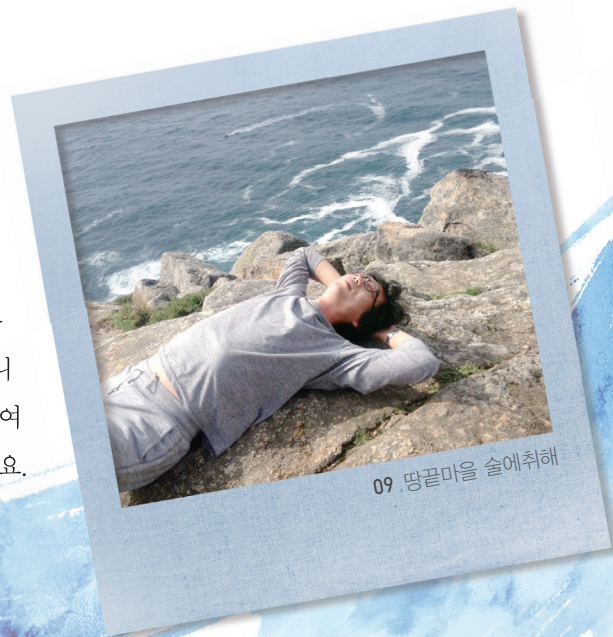


08 무시아 석탑

구에 차를 세우고 점심 식사하러 식당으로 향합니다. 여러 가지 해산물요리와 백포도주가 나옵니다. 특히 문어요리가 특이하게도 입에 살살 녹으며 맛이 좋네요. 백포도주도 맛있어 요리와 잘 어울립니다. 일행인 교수님, 회장님 부부, 예쁘장하게 생긴 아가씨등과 순례자 길에 대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만찬을 즐깁니다. 평화스럽고 기쁨으로 가슴이 충만한 느낌입니다. 이분들은 한 달 넘게 800km의 순례자 길을 걸은 터여서 물어볼게 많아서 식사시간도 길어지고 술병도 자꾸만 쌓여갑니다. 그 뒤부터 기억이 잘 나지 않는데 나중에 사진을 보니 0.00Km 표지석에서 물병을 들고 만세 부르는 사진, 바다가 바라보이는 바위위에서 자고 있는 사진이 기억을 대신합니다.

자고 일어나서는 맛있게 먹은 점심을 깨끗이 비웠습니다. '어제는 빗물에 몸 밖을 정화하고 오늘은 속까지 정화하고 나는 순례자 길 위에서 새 인간으로 태어나는구나' 라고 위안했지만, 여행 말미에 오점을 남기는 것 같아 많이 부끄럽고 후회했습니다. '지나친 탐욕은 화를 부른다! 절제의 미덕을 배우자!' 속으로 되새겨봅니다. 이렇게 순례자 길도 끝나고 집으로 돌아갈 여정만 남았습니다. 인생은 나그네 길이라고 하지요. 여러분들도 여행길을 통해 인생의 참맛과 멋을 느끼고, 지친 영혼을 힐링하며 삶의 에너지를 충전하기를 바랍니다.

Buen Camino!



09 멍끝마을 술에취해

꽃 예찬론, 복수초

CHO JAE HYUN



조재현 원장
조내과의원(구미)
구미시의사회 의무이사

꽃은 식물에서 씨를 만들어 번식 기능을 수행하는 생식기관을 말합니다. 크게 꽃잎, 꽃받침, 암술, 수술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식물이라고 다 꽃을 피우는 것은 아닙니다. 35만여 종의 식물 중에 꽃을 피우는 속씨식물은 약 30만 종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는 4천여 종의 자생식물을 포함해서 재배식물과 귀화식물까지 포함하면 약 14,000여 종의 식물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식물이 있으니, 주변을 돌아보면 무수히 많은 꽃을 볼 수 있습니다. 거실 화병에 꽃이 꽃혀 있고 거실 베란다의 화분에 공기정화 식물을 키웁니다. 아파트 화단에 봄이면 영산홍이 화려하게 피어나고 도로변 가로수에는 봄이면 벚꽃이 흐드러집니다. 공원 산책로에도 홍접초 같은 여러 가지 원예종 꽃들이 심어져 있습니다. 산에는 철쭉, 바닷가에는 해국 같은 수많은 꽃들을 볼 수 있으니 우리는 365일 동안 꽃에 둘러싸여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꽃과 인간은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인간의 역사와 신화 속에서 꽃에 관한 이야기들을 심심치 않게 접할 수 있습니다. 단군신화에 나오는 쑥과 마늘(쑥과 마늘도 꽃이 핀답니다), 부처님의 탄생과 불교 설화와 관련된 연꽃, 선덕여왕의 지혜를 드러내는 나비 없는 모란꽃 그림이야기(실제로 모란꽃은 향기가 있습니다) 등 우리 역사에서 꽃과 식물은 빼 놓을 수 없는 중요한 부분이지요.

또한 우리 인간은 꽃과 식물로 의식주를 해결하였습니다. 냇가의 갈대와 억새로 지붕의 이엉을 이었고 끈끈한 금강송으로 단단한 대들보를 만들었지요. 길가 싸리를 엮어서 사립문을 만들기도 했습니다. 봄에 하얀 꽃이 피는 냉이뿌리로 된장을 풀어 구수한 냉이 된장국을 만들어 먹어야 비로소 봄이 온 것 같고, 여름에는 노란 꽃이 피는 오이로 시원한 냉국을 만들어 마시면 더위가 싹 가시는 것 같지요. 사실 우리가 먹는 거의 모든 것은 식물로부터 왔다고 할 수 밖에 없을 거예요.

윈나라 사신으로 갔던 문익점이 북두껍에 목화씨를 숨겨 와서 겨울철 따듯한 솜털이불을 덮을 수 있었고 면으로 된 옷을 입게 되었지요. 옷을 예쁘게 치장하려고 홍화로 붉은색을 내고 치자로 노란물을 들었지요. 쪽으로 푸른빛을 내었습니다. 지금까지 꽃과 식물은 인간의 생활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였습니다.

꽃이 없는 겨울은 춥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복수초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복수초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복수초가 꽃말처럼 새해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랍니다

꽃과 식물에 둘러싸여 살다보니 인간의 생각과 감성이 꽃으로 표현되기도 하였습니다. 예부터 선비들은 사군자를 높은 덕과 인품을 가진 군자와 비슷하다고 하여 그림으로 즐겨 그렸습니다. 매화는 이른 봄에 추위를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나무이지요. 그래서 불의에 굴하지 않는 선비 정신의 표상으로 삼았답니다. 퇴계선생님의 매화사랑은 유명했지요. 난초는 깊은 산중에 꽃을 피워 비록 보이지는 않지만 향으로 자신을 알리는 것처럼 군자 또한 높은 인품으로 주위를 감화시켜야 한다는 이상이 담겨있는 꽃입니다. 국화는 늦은 가을에 첫 추위와 서리를 무릅쓰고 겨울까지 피어 고고한 기품과 절개를 지키는 꽃이라 여겼답니다. 대나무는 사시사철 잎이 지지 않고 겨울에도 푸르기 때문에 변하지 않는 선비의 절개를 나타내었지요. 한편 꽃에 특별한 의미를 담아 그림을 그리기도 하였는데 학문적 성취를 이루라고 여뀌를 그려 넣기도 하고, 부귀영화를 누리라고 모란을 그리기도 하였습니다. 이처럼 꽃은 우리 문화와 예술에도 깊이 뿌리내리고 있답니다.

꽃과 관련된 각자의 추억들을 가지고 계신가요?

저는 도시에서 나고 자라서 자연과 접할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 기억 속에 꽃의 기억이 별로 없는 줄로 알았지요. 그런데 요즘 제가 꽃에 관심을 가지면서 제게도 꽃에 관한 많은 추억들이 있었던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릴 적 친구들과 저희 집 마당에서 비석치기를 하고 놀았었는데 그 옆에 봄이면 하늘색 꽃이 피는 라일락이 짙은 향기를 뿜어냈었죠. 초등학교시절 학교 운동장에서 말타기 놀이를 할 때 커다란 개잎갈나무(히말라야시다)가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습니다. 개울에서 친구들과 개구리를 잡을 때 강아지풀을 미끼로 썼던 기억도 납니다. 이처럼 꽃은 우리의 추억을 구성하고 더 향기롭게 한답니다.

저는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대구에서 직장이 있는 구미까지 출근을 하는데요, 버스를 타고 다시 기차를 타고 역에 내려서는 한참을 걸어서 병원으로 출근을 합니다. 차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매일 차를 운전하는 것이 많이 피곤하기도 하고 대중교통을 이용하면서 사람들과 거리 풍경을 관찰하거나 나만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좋았습니다. 역에 내려서 병원까지 산길을 걷다보면 신선한 공기에 막힌 가슴이 뚫리는 것 같아 좋습니다. 꽃을 잘 모를 때는 사계절 변해가는 자연의 모습이 그저 아름답게만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우연한 계기로 꽃을 공부하고 꽃 사진을 찍게 되었습니다. 아침 출근길에 카메라를 메고 산길을 걸으며 사계절 피어나는 꽃을 사진으로 담는 작업은 귀찮기만 하던 출근길을 자연의 변화를 직접 느끼며 사진이라는 취미활동을 즐길 수 있는 즐거운 출근길로 만들었지요. 이런 출근길의 취미생활로 건강은 덤으로 챙길 수 있었답니다.

저는 요즘 출근길을 걸으며 출근길의 추억을 자연과 꽃으로 채우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 속에 출근길의 풍경을 풍요로웠던 꽃들의 색상과 향기로 채우는 작업이지요. 출근길 하천에서 만난 명아주여뀌와 고마리, 도로변에 흐드러지게 핀 벚꽃, 산길에 하얀 양탄자를 깔아 놓은 듯 했던 아까시나무꽃, 무덤가에서 만난 타래난초, 각시붓꽃과 구절초 등은 잊을 수 없는 출근길의 추억이 되었습니다.

이제 겨울이 깊어져 화단의 국화마저 저 버리고 꽃을 보기가 어려워졌습니다. 철없는 개나리가 따듯해진 날

씨에 놀라 가끔씩 꽃을 피우는 일이 있긴 하지만 예외적인 경우이고 산과 들은 온통 얼어붙은 세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꽃에 대한 그리움이 깊어집니다. 한파 몰아치는 누렇게 변해버린 삭막한 산길을 걸으며 어서 빨리 꽃이 피는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또 기다린답니다.

봄이 오면 제일 먼저 봄소식을 알려오는 꽃이 있습니다. 바로 복수초입니다.

제가 복수초를 처음 만난 때는 아직은 겨울 추위가 남아있는 2월의 어느 날이었어요. 따듯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부산의 야트막한 계곡에서 복수초를 처음 만났습니다. 주변이 온통 낙엽과 말라버린 풀잎으로 가득한 계곡에 햇빛을 듬뿍 받아 황금잔처럼 빛나는 복수초는 정말 아름다웠습니다.

복수초는 전국 산지의 숲속에서 자라는 미나리아재비과의 여러해살이풀입니다. 복수초는 2월부터 꽃이 피기 시작하여 4월까지 꽃이 핍니다. 따스한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동해안 어딘가에는 1월에도 복수초를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복수초를 부르는 이름이 여럿 있습니다. 설날에 핀다고 원일초(元日草), 눈 속에 피는 연꽃 같다고 설연화(雪蓮花), 꽃이 황금색 잔처럼 생겼다고 측금잔화(側金盞花)라고 부릅니다. 일본에서는 복을 많이 받고 오래 살라는 뜻을 담아 이 꽃을 선물했어요. 그래서 복수초라는 이름이 유래되었다고 합니다.

복수초의 노란 꽃은 햇빛의 복사열을 받아 주변보다 온도가 높습니다. 주변이 영하 1~2도 일 때에도 복수초 꽃봉오리 안의 온도는 영상 5~6도 정도로 높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변에 눈이 쌓여도 주변의 눈을 녹이며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그래서 눈색이꽃, 얼음새꽃이라고도 부릅니다. 하얗게 눈 덮인 숲속에서 햇빛 가득 담은 노란 복수초가 눈을 녹이며 피어있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입니다.

대구경북에 세계적인 규모의 복수초 군락지가 있습니다. 바로 칠곡의 가산산성입니다. 3월이면 노란 복수초들이 무수히 피어나 장관을 이루지요. 올해 3월 초에 복수초가 피었다는 소식에 가산산성으로 달려갔었습니다. 두 시간여 동안의 숨이 턱까지 차오르는 산행 끝에 복수초 군락지를 만났습니다. 그런데 소식과는 달리 복수초가 없었어요. 한참을 찾아보니 출입금지를 알리는 경계선 너머 언덕 중턱에 몇 송이 복수초가 피어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몇 사람이 경계선을 넘어가 열심히 복수초를 사진에 담고 있었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그만 발걸음을 돌렸습니다. 예쁜 복수초를 사진에 담겠다고 꽃을 보호하려고 쳐둔 경계선을 넘을 수는 없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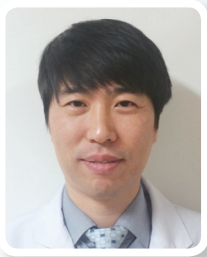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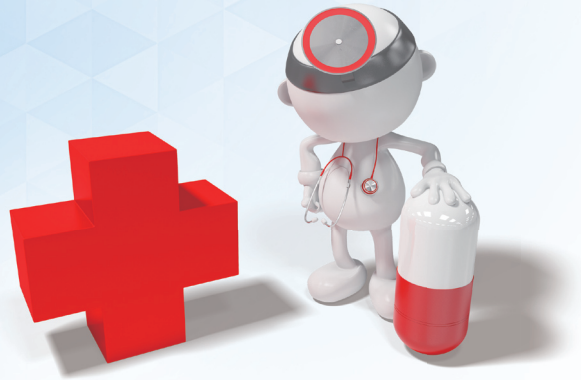
야생화를 좋아해서 찾아다니다 보면 실망스런 경우를 많이 본답니다. 꽃이 예쁘다고 무턱대고 꺾어서 가져가는 사람도 있고, 자기 집 화분에 심으려고 뿌리째 뽑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야생화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로 마찬가지입니다. 사진을 예쁘게 찍으려고 꽃에 설탕물을 분무기로 뿌리기도 하고, 주변의 낙엽과 잔가지들을 치워버려 뿌리까지 찬 공기에 노출되게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복수초의 경우, 얼음새꽃이란 이름 때문에 주변에 빙설을 갈아 뿌리고 사진을 찍는 경우도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희귀하고 예쁘

게 핀 꽃을 찍고 나서는 다른 사람이 찍지 못하도록 꽃을 꺾어버리는 나쁜 사람들도 있습니다. 꽃을 보고 감동을 받고 꽃을 사랑하게 되면 꽃을 꺾을 것이 아니라 물을 주고 햇빛을 더 잘 받을 수 있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야생화 사진을 취미로 하는 사람들도 사진의 예술성 보다 꽃에 대한 사랑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꽃이 없는 겨울은 춥고 삭막하기만 합니다. 하루빨리 추운 겨울이 지나고 복수초를 만날 수 있기를 기원합니다. 복수초의 꽃말은 '영원한 행복'이라고 합니다. 복수초가 꽃말처럼 새해에도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기를 바라봅니다.



노화와 콩팥



윤영득 과장
경산중앙병원 내과

인체의 장기는 출생과 함께 성장, 성숙, 퇴화라는 노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생리적 기능을 잃어간다. 콩팥의 기능도 개인에 따른 차이는 있으나 노인에서 기능이 저하되며, 건강한 상태에선 특이증상을 보이지 않는 반면, 동반된 질환이나 탈수, 투약 등에 따라 쉽게 악화되는 임상 증상을 나타내는 것이 특징이다. 우리나라도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며 고혈압, 당뇨, 퇴행성 관절염 등과 같은 만성질환의 증가와 이에 따른 이뇨제나 항고혈압제, 혈당저하제 및 진통소염제와 같이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양한 약제들의 사용도 증가하고 있다. 따라서 노인 환자에서 콩팥 기능의 변화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

1. 해부학적 변화

일반적으로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콩팥 무게와 크기는 감소한다. 콩팥의 무게는 출생시에는 약 50g 정도이다가 40~50대에 최대 400g 정도까지 증가하며 90대에는 약 300g 까지 감소하게 된다. 특히 사구체가 위치하고 있는 피질부위의 소실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콩팥의 크기도 40-50대까지는 증가하다가 80세가 되면 약 5cm 가량 감소하게 된다. 일측 콩팥당 사구체 수도 70~180만개에서 콩팥의 무게와 비례하여 30~50% 감소되며, 이때 남아있는 사구체가 그 보상작용으로 비대해지게 된다. 콩팥으로 가는 혈류량도 20대에 600mL/min/1.73m²에서 매 10년마다 10%씩 감소하여 80대에 300mL/min/1.73m²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

콩팥의 기능을 나타내는 사구체 여과율은 40대에 140mL/min/1.73m²를 기점으로 해마다 0.8mL/min/1.73m²씩 감소한다. 그러나, 사구체 여과율의 경우는 개인적인 차이가 있어, 약 1/3의 노인에서는 사구체 여과율이 감소되지 않고 정상을 유지해 반드시 연령과 관련돼 변하는 것은 아니다. 임상적으로 사구체 여과율을 추정하기 위해 측정하는 혈청 크레아티닌 농도는 연령이 증가하여도 큰 변화가 없다. 이는 크레아티닌이 신체의 근육에서부터 나오기 때문인데, 연령이 증가하면서 근육량이 줄어들기 때문에 실제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어도 마치 정상인 것처럼 보일 수 있다. 따라서 노인에서는 혈청 크레아티닌을 측정하여 콩팥 기능을 평가하기보다는 계산식을 사용하여 추정하는 것이 좋다. (table)

<Table> 사구체 여과율 계산식

Cockcroft-Gault : $CrCl(mL/min)=[140-age(years) \times weight(kg) \times (0.85 \text{ if female})]/72 \times sCr(mg/dL)$

MDRD : $eGFR(mL/min \text{ per } 1.73m^2)=186.3 \times PCr(e^{-1.154}) \times age(e^{-0.203}) \times (0.742 \text{ if female})$
 (www.kidney.org/professionals/kdoqi/gfr_calculator.cfm)

CKD-EPI : $eGFR=141 \times \min(Scr/k, 1)^a \times \max(Scr/k, 1)^{-1.209} \times 0.993^{Age} \times 1.018 \text{ (if female)}$
Scr : serum creatinine, **k** : 0.7 for females and 0.9 for males,
A : -0.329 for females and -0.411 for males,
Min : the minimum of Scr/k or 1, **max**: the maximum of Scr/k or 1
 (<http://www.qxmd.com/renal/Calculate-CKD-EPI-GFR.php>)

3. 소듐과 포타슘 조절

노인에서 혈청 소듐 농도는 대부분 정상이지만 7~8%에서는 약간 낮은 경향이다. 이러한 저나트륨혈증은 염분의 부족이나 상대적인 수분 과다를 반영하는데 노인은 일반적으로 젊은이에 비해 총 염분 섭취가 적다. 반면 정상적인 수분 섭취와 적은 염분의 섭취에도 불구하고 요중 소듐 배설은 증가되었다. 요중 소듐 배설의 증가는 세뇨관 기능 장애와 알도스테론, atrial natriuretic polypeptide(ANP)의 영향으로 추정된다.

노인에서 소듐 부하시 부하된 소듐의 배설도 지연되는데,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로 신부전증과 유사하게 소듐의 여과량이 적을 뿐 아니라 추가적으로 소듐 부하시 배설이 증가되는 적응 반응도 지연된다. 따라서 노인 환자에서 급격한 고, 등장성 수액의 투여시에는 콩팥의 소듐 배설 적응 시간이 둔화되어 있음을 고려하여야 한다.

요중 소듐 배설을 증가시키는 ANP는 노인에서 기립시와 같은 분비 자극시에 젊은이에 비해 더 현저히 증가하고, ANP 주사 후 요중 소듐 배설과 이뇨 효과도 노인에서 더 뚜렷하다. 따라서 노인에서는 ANP를 통한 소듐 배설 증가도 소듐 손실의 한 요인이다. 이러한 노화에 따른 생리학적 변화 외에 노인에서 흔히 동반될 수 있는 폐쇄성 요로병증, 요로 감염, 이뇨제의 복용이나 신우염 등은 소듐 배설을 증가시킬 수 있으므로 소듐 대사 장애의 추가적인 원인으로 고려해야 한다.

노인에서 체내 포타슘의 양은 근육량의 감소로 저하되는 반면에 포타슘의 배설은 일반적으로 감소한다. 포타슘은 거의 대부분 콩팥으로 배설되는데 원위세뇨관의 principal cell의 능동적 분비를 통해서 이루어진다. Principal cell은 혈중 포타슘을 능동적으로 흡수해서 세뇨관 내로 분비하는데, principal 세포의 수와 세뇨관 내의 충분한 수분과 염분 그리고 알도스테론이 있어야 원만히 일어난다. 연령이 증가하면 콩팥 실질의 위축으로 세뇨관 세포수가 감소하고, 레닌 분비의 저하와 함께 알도스테론에 대한 세뇨관 반응의 저하로 포타슘 배설이 장애를 받는다.

노인의 포타슘 배설 장애는 고칼륨혈증의 추가적인 요인이 있는 경우에 쉽게 악화된다. 흔히 처방되는 약제들 가운데 고칼륨혈증을 유발하기 쉬운 약제들로 이뇨제 중 spironolactone, triamterene

과 amiloride 등은 노인에서 젊은이에 비해 더 흔히 고칼륨혈증을 유발한다. 항고혈압제인 angiotensin converting enzyme(ACE) 억제제나 angiotensin II 수용체 차단제는 알도스테론의 작용을 저해함으로써 고칼륨혈증을 유발하며, 베타차단제도 세포내 포타슘 이동의 제한과 콩팥내 레닌 분비 억제로 고칼륨혈증을 초래할 수 있다. Nonsteroidal anti-inflammatory drugs(NSAIDs)도 프로스타글란딘 E2, I2를 통한 콩팥내 레닌 분비를 억제함으로써 hypoaldosteronism 효과로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다. 이러한 hypoaldosteronism의 효과로 고칼륨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약제들은 고령이며 이미 콩팥 기능이 저하되어 있는 환자나 레닌 분비가 저하된 당뇨병 환자에서 사용에 유의하여야 한다.

울혈성 심부전이나 심한 설사와 같이 유효 순환 체액량의 감소로 콩팥에서 염분, 수분의 재흡수가 현저히 증가한 경우엔 원위부에 도달하는 소듐 양의 부족과 요량의 감소 등으로 노인에서는 고칼륨혈증이 쉽게 초래될 수 있다.

4. 수분균형

노인의 체내 수분량은 체중의 54% 정도로 젊은이의 60%에 비하여 약간 감소하는데 이는 지방이 많아진 결과로 감소된 수분은 주로 세포내 체액 성분으로 세포외 체액인 혈장이나 혈액량의 변화는 없다.

수분의 평형은 수분의 섭취와 배설로 이루어지는데 수분의 섭취는 주로 갈증에 따라 결정되며, 수분의 배설은 뇌하수체의 항이뇨호르몬(antidiuretic hormone; ADH, arginine vasopression; AVP)의 분비와 작용, 요의 농축과 희석 및 땀과 호흡을 통한 불감지성 손실을 통하여 일어난다. 노인에서 수분의 불감지성 손실은 젊은이와 큰 차이가 없지만 갈증, AVP의 분비와 콩팥에서의 작용 그리고 요농축 능력 희석능은 변화를 보인다.

노인은 대부분 젊은이에 비하여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덜하며 이에 따라 수분 섭취도 감소한다. 갈증은 탈수에 따른 혈장 삼투압의 증가로 유발되는데 노인에서는 갈증을 감지하는 삼투압의 한계가 젊은이에 비하여 더 높다.

갈증은 삼투압의 증가없이 등장성 체액 손실시에도 baroreceptor의 민감도가 낮아져 갈증의 유발이 둔화될 수 있다. 혈중 안지오텐신은 체액량 감소에 따른 갈증 유발을 매개하는 물질인데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노인에서는 레닌 치의 감소와 함께 안지오텐신 치도 감소하므로 갈증이 저하되는 원인의 하나이다. 이처럼 노인에서는 갈증을 느끼는 정도가 저하되어 있으므로 젊은이에 비하여 더 심한 탈수나 저혈압이 동반되어야 갈증을 통한 수분 섭취가 일어나므로 갈증이 없더라도 체액 손실 여부를 고려해 보아야 하고 갈증이 유발된 경우엔 적극적으로 수액 공급을 고려하여야 한다.

AVP는 혈장 삼투압과 체액량에 따라 조절되며 콩팥의 수분 배설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노인에서 고삼투압에 따른 AVP 유리는 젊은이와 차이가 없고, 오히려 증가하며, saline의 주입이나 수



분 제한에 따른 AVP 유리는 정상적이다. 반면에 저혈압과 같은 체액량 감소에 따른 AVP 유리는 노인에서 젊은이보다 감소된다. 또한, 노인에서는 adenylyl cyclase 활성화도 및 cAMP의 생성이 감소해 정상적으로 AVP가 유리되더라도 충분한 항이뇨 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다. 세뇨관의 AVP에 대한 민감도 저하는 신수질의 고삼투압의 변화 여부와 무관하게 초래되며 노인에서 요농축능 저하의 한 원인이 된다. 따라서 노인에서는 체액량 감소의 경우 충분한 AVP유리와 그에 따른 항이뇨 효과를 기대할 수 없으므로 체액량 변화에 쉽게 적응하지 못하고 생체 활력 지수의 변화나 전해질 불균형을 초래할 수 있다. 특히 노인에서 AVP 유리를 증가시키는 안정제(thioridazine, haloperidol, amitriptyline, MAO inhibitors)나 chloropropamide, tolbutamide 등의 경구혈당강하제 그리고 AVP의 작용을 억제하는 lithium, demeclocycline 등의 약제를 사용할 경우 유의하여야 한다.

노인에서는 일반적으로 요농축능이 저하되어 희석된 소변을 보게 되며 소변을 보는 빈도도 증가한다. 요농축능의 저하 정도는 최대 농축능을 기준으로 10년에 5% 정도씩 저하되는데, 특히 요량은 2배 가까이 증가되어 다뇨를 보인다.

요농축능의 저하 기전은 다양한데 우선 사구체 여과율이 저하되므로 잔여 신원들의 용질 과부하로 인한 삼투성 이뇨 효과를 예상할 수 있으며, 피질부의 혈류 감소로 상대적인 수질부 혈류의 증가 및 원위부 세뇨관의 나트륨 재흡수 장애에 따른 수질 고삼투압의 감소, AVP 에 의한 수분 재흡수 장애 등도 요농축능의 저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이러한 요농축능의 저하는 앞서 기술한 나트륨 손실과 함께 노인성 다뇨와 야뇨증의 원인이 된다.

요약

노인에서 콩팥 기능은 사구체 여과율의 감소와 다양한 세뇨관 기능의 변화를 동반하는데 나트륨의 손실과 포타슘의 배설 장애 및 나트륨이나 포타슘에 대한 적응 능력이 저하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따라서 질환이나 약제로 인하여 이러한 장애가 쉽게 악화 될 수 있으므로 고령자일수록 체액 상태와 콩팥 기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약제의 투여에 유의하여야 한다.

REFERENCES

- Glasscock RJ, Rule AD. The implications of anatomical and functional changes of the aging kidney: with an emphasis on the glomeruli. *Kidney Int* 2012; 82:270.
- KDIGO 2012 Clinical Practice Guideline for the Evaluation and Management of Chronic Kidney Disease. *Kidney Int Suppl* 2013; 3:1.
- Epstein M. Aging and the kidney. *J Am Soc Nephrol* 1996; 7:1106.

Center
Introduction동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 소개

임 현 술 센터장
동국의대 예방의학과 교수

동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는 2014년 3월 20일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감염성 질환 연구센터로 지정 받아 2016년 말까지 운영할 계획이며, 동국대학교 의과대학 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서 유일하게 지정되어 운영되는 농업안전보건센터이므로 경북의사회 지면을 통하여 소개하고자 합니다.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제15조 의2에 따라 농업인의 직업성 질환 등 건강문제를 조사·연구하고, 농업안전보건 교육과 홍보 등을 수행하는 기관입니다. 농촌지역의 특성상 의료접근성이 매우 떨어지고, 농업인의 고령화와 장기간 농작업 등으로 의료에 대한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농업인에 대한 보건 의료 복지정책의 일환으로 2013년부터 농림축산식품부가 대학병원이나 의과대학을 농업안전보건센터로 지정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2013년 호흡기질환, 허리질환, 일광·자외선 노출 질환, 무릎관절염 질환, 상지 근골격계 질환을 연구하는 5개 센터 지정을 시작으로, 2014년에 감염성 질환, 농약중독을 연구하는 2개 센터를 추가 지정하였습니다.

경상북도는 재배, 축산 등 농업 인구가 많은 지자체 중 하나로, 특히 경주지역은 재배농업뿐만 아니라 전국에서 한우 생산 1위의 축산 도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러한 재배 및 축산 작업의 특성은 동물과 사람에서 공통으로 발생하는 인수공통감염병의 위험을 증가시키며, 가축과 잦은 접촉, 논과 밭에서 작업 시 적절한 보호 장비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인수공통감염병의 발생이 증가하여 건강장애는 물론 노동력 상실로 인한 경제적 피해도 증가하게 됩니다.

동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는 농업인에게서 발생하는 감염성 질환(특히, 인수공통감염병)을 조사·연구하고, 교육·홍보를 통해 실질적인 예방 방법을 제시하여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자유로운 농촌사회 구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크게 3가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첫째, 농업인 인수공통감염병 실태 및 위험요인 조사로 재배농업인에서는 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을 검사하고 있고, 축산농업인에서는 브루셀라증, 큐열을 검사하고 있습니다. 둘째, 농업인 인수공통감염병 통합감시체계구축입니다. 웹기반 인수공통감염병 정보 센터를 구축하고, 각종 인수공통감염병에 대한 정보 및 보건소, 지자체

Center Introduction

와 연계하는 감시자로 수집체계를 확립해, 역학조사를 통한 현장중심의 감시체계를 구축하고 지역병원과 협력해 정보제공 체계를 확립하고자 합니다. 셋째, 농업인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한 교육 및 홍보입니다. 교육·홍보 자료개발, 이동식 미디어 체험 교육관 개발, 농업인 대상 교육실시와 마을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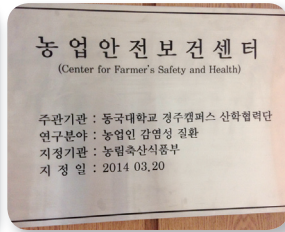
현재 우리 센터는 각 마을 단위로 가을철 발열성 질환(쯔쯔가무시증, 렙토스피라증, 신증후군출혈열)에 대한 교육을 진행하였으며, 지난 10월말부터 이동식 미디어 체험 교육관을 도입해 각 마을을 순회하며 농업인이 직접 참여하는 체험 교육관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농업안전보건센터는 앞으로 더 열심히 노력해 감염성 질환으로부터 농업인을 보호하는데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경상북도의회 회원 여러분!

저희 센터를 위하여 필요 시 고견을 부탁드립니다. 새해 가내 화목하고 하고자 하시는 모든 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 농업안전보건센터 지정



■ 현장조사 및 검진



■ 예방교육



■ 마을지도자 양성교육



■ 체험 교육관 운영



동국대학교 경주캠퍼스 산학협력단
농업안전보건센터
CENTER FOR FARMER'S SAFETY & HEALTH

2014년도 의사회비 납부 요청 및 신용카드 결제 안내



2014년도 의사회비는 의사의 전문성 및 자율성을 확보하고 정책단체로서의 위상을 강화하며, 국민과 함께하는 이미지 고양과 회원서비스를 강화 하는데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회원님께서 납부해 주시는 소중한 회비는 의권 신장과 더불어 본회의 효율적인 사업추진 등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쓰여지고 있으며, 의사의 종주단체로서 국민과 함께하는 건강지킴이 역할 수행은 물론 단합된 회세와 전문성을 확보하여 정책단체로서의 역할수행에 최선을 다하고 있사오니, 의사단체의 존재성을 되새겨 회비를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본회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카드 결제로도 회비납부가 가능하오니 많은 이용 바랍니다.

신고대상

- 대한민국 의사면허를 취득한 자(본회 소속회원)

납부방법

- 계좌입금 : 농협 301-0104-6600-81 경상북도의회
- 카드결제
홈페이지(<http://www.igbma.or.kr>) 접속 → 회비납부 클릭(화면 우측 배너) → 해당금액 결제

의협회비 면제 및 감면 대상

- 회비면제 회원
 - 만70세이상 회원(1944년 5월 1일 이전 출생자) :
단, 경상북도 의사회비는 '가 회원' 250,000원, '나 회원' 125,000원 납부
 - 질병, 신체장애,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회계연도중 12개월 이상 진료활동이 중단된 상태에 있는 회원
 - 공직 또는 봉직의사로서 정년퇴임 후 경제활동이 없는 회원
 - 보건의료분야에 종사하지 아니하고 타 분야에 전업한 회원
 - 기타 사유로 생계가 극히 곤란함이 인정되어 면제를 요청하는 회원
※ 회비면제회원 신청 : 해당회원의 증빙자료 첨부 신청
- 회비 감면회원
 - 개원회원('가'회원)중 '나'회원회비 적용대상 : 501,000원 징수
(만65세이상 회원 : 1944년 5월 1일 ~ 1949년 4월 30일 주민등록표상 기준)
- 행정사항
 - 투쟁성금을 기 납부한 회원은 개원·근무회원 2만원, 전공의·공보의 회원 1만원 면제
- 회계기간 : 2014. 4. 1 ~ 2015. 3. 31

회비내역

구 분	가 회원		나 회원	다 회원	라 회원	휴직회원	비 고
	개원회원	감면회원	근무회원	전공의회원	공보의회원		
대한의사협회비	330,000	251,000	251,000	145,000	116,000	145,000	연회비·의협신문구독료 연구소·종합학술대회비 한방대책·투쟁특별회비
경북도의사회비	250,000	250,000	125,000	75,000	-	-	
계	580,000	501,000	376,000	220,000	116,000	145,000	

“최초의 발을 딛다!”
Statin을 포함한 ARB



- One Pill, Statin을 포함한 ARB · 3상 임상을 통한 유효성 및 안전성 입증
- Powerful Irbesartan, Proven Atorvastatin(CV risk management 1차 치료제)

■ 성분 : 150/1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10mg), 150/20(이르베사르탄150mg/아토르바스타틴칼슘20mg) ■ 용법용량 : 성인에 한하여 투여하며 투여용량은 이르베사르탄/아토르바스타틴 각 성분의 효과 및 내약성에 근거하여 각 환자에서 개별화되어야 함. 1차제한 사항은 첨부문서 참조. ■ 효능효과 : 본태성고혈압, 고혈압을 가진 제2형 당뇨병자의 신장관 치료, 심근경색증, 외출증, 혈관 재생술 및 만성 안정형 협심증 등에 대한 위험성 감소
 ■ 제품문의 : 080-916-9000(소비자상담실)

